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3년 2월 7일 화요일
etoday.co.kr

제3069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AAA/AA·A·BBB 각 +,0,-순으로 투자적격등급 구분

코스피(6일) 2438.19(−42.21P) ▼ 코스닥 761.33(−5.46P) ▼
환율(달러당 원화) 1252.80(+23.4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3.283%(+0.173%P) ▲



'여의도 시범 재건축' 삼성·현대·GS 각축 14



"건강상 이유"… 한용구 신한은행장 사임 16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지배구조 칼 빼든 李, 이사회 현미경 감시한다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회장 선임 절차, 감독 강화
공정성·투명성 등 제고 필요
중장기 성과보수 체계 갖춰야"
이사회와 직접 소통도 주문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이사회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함에 따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칼을 뽑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금감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승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진행키로 했다.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경영진,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적시에 보고하는지에 대해 일부 문제의식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촘촘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인 성과보수 체계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사 지배구조에 손을 대려는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연착륙 기대감 커지는 美
경기침체 공포 깊어진 유럽

선진국 경제 전망 희비

"美주정부 현금 넘쳐…성장 지원"
실업률 3.4%, 54년 만에 최저
유럽, 금리인상에 부동산 폭락
유동성 위기에 금융시장 불안
셈법 복잡한 韓 상저하고 전망

선진국들의 경제전망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양호한 경제지표가 쏟아지며 '연착륙' 가능성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반면 유럽은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주 정부들이 쌓아둔 '준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주정부예산담당관협회(NASBO) 분석 결과, 2023 회계연도 '비상기금'이 1368억 달러(약 171조 원)로 1988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비상기금은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잉여세수에서 떼어내 쌓아둔 것으로, 예산안정자금으로도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세수가 늘었고,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주 정부의 곳간을 두둑하게 만들었다.

주 정부의 탄탄한 재정은 경기침체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 및 지방정부에 현금이 넘친다"며 "올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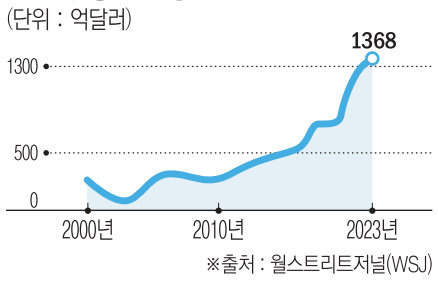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도 연착륙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3일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고용이 51만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8만5000명)를 세 배 가까이 웃돈 것이다. 실업률은 3.4%로 내려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면서도 "연착륙 가능성은 몇 달 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럽의 경기침체 공포는 더 깊어간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여파다. 독일 주택가격지수는 ECB가 11년 만에 금리 인상에 착수한 작년 7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장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부동산발(發) 금융위기가 유럽 전체를 경기침체에 빠트릴 가능성도 있다. FTSE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부동산 주가지수는 3일 기준 전년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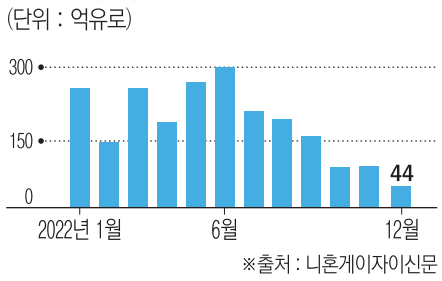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반등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미 금리 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미국 주정부 비상기금
(단위 : 억달러)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WSJ)

유로존 주택구입 대출
(단위 : 억유로)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튀르키예 강진… 최소 568명 사망

튀르키예 디야르바키르에서 6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규모 7.8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시간 기준 이날 오후 5시 20분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최소 568명, 부상자는 수천 명 발생했다. ▶관련기사 9면

디야르바키르(튀르키예)/로이터연합뉴스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번호판 장사 퇴출

화주 처벌 대신 운임 조정
3년 일몰… 지입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 3년 일몰이 도입된다.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이 삭제된다.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대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결정구조도 공익은 강화하되 운수사와 차주의 비중은 줄인다.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 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는 처분 수준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하고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아울러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을 유도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편의점·주유소·축구단…'마당발' GS, 부산 향해 폭풍 드리블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 ❼

GS그룹은 GS리테일, GS칼텍스, GS스포츠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GS그룹은 각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시너지를 내고자 지난해 9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GS건설 우무현 TF장(사장)을 중심으로 ㈜GS,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GS글로벌, GS스포츠 등 주요 계열사 고위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현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고객 참여 행사와 성공 기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에 송출되는 GSTV와 GS샵 홈쇼핑 방송 및 GS샵 모바일 앱과 SNS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전국에 3100대가 설치된 GSTV의 경우 하루 21~30회 관련 영상을 송출했다. 샵라이브 채널에는 매일 2회(오후 1~4시)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20초 영상을 송출했다. 샵 샤피 라이브에는 매일 14개 프로그램 사이 영상에 하단 자막을 노출 중이다.





GS와 FC서울이 지난해 9월 4일 슈퍼매치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 설치한 '2030 부산엑스포 홍보 부스'에서 FC서울이 '슈퍼 응원 데이'를 진행했다. 사진은 축구팬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제공 GS

GS리테일·칼텍스 등 계열사 총동원
미디어·점포 활용하여 홍보에 박차
FC서울 슈퍼매치서 '슈퍼 응원데이'

특히, 수도권 GS25에 2만여 장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홍보 브로셔'를 비치하는 등 대한민국 최초의 등록 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BTS콘서트 진행 시 100여 점포에 유치 기원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했다.

GS칼텍스도 엑스포 유치 기원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유소 및 충전소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제작해 부착했다. 또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광고 게시물 등에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붐업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칼텍스는 서울 태평로 디조빌딩, 코리아나호텔, 강남 삼흥빌딩, 명동 고려빌딩, 신사 송천빌딩 등에 옥외 전광판 동영상 광고도 게재했다.

GS건설은 홈페이지, 분양 카탈로그, 홍보영상물, 자이TV 영상물 등을 노출시키고, 아파트 분양 시 유치 기원 고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응원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은 많은 스포츠 팬을 확보한 'GS스포츠'다. 서울을 연고로 하는 K리그 대표 인기 구단 FC서울은 지난해 9월 4일 대한민국 축구 최대 라이벌더비인 수원삼성과의 슈퍼매치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슈퍼 응원 데이'를 진행했다. FC서울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 '2030 부산엑스포 홍보 부스'를 직접 설치하기도 했다. FC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대형 전광판을 비롯해 3면 LED보드 등에 유치기원 메시지를 송출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엑스포 유치위, 부산 하늘에 드론택시 띄운다

SKT·한화·공항공사 등 MOU
"2030 부산엑스포 UAM 적용"

#.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 시내 곳곳이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로 붐빈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기 때문이다. 도심항공교통(UAM)만 타면 부산 시내 어디든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엑스포 전시장 앞에서는 관람객을 태운 UAM이 연이어 수직으로 날아오른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에서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실제 교통수단으로 UAM을 선보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와 이런 내용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UAM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다. 기존 비행기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넓고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동력으로 운영돼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 유치위는 부산엑스포에서 UAM을 단순 전시용이 아닌 방문객의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위는 지난해 9월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한 유치계획서에서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UAM 등 미래형 교통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UAM은 2025년 수도권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부산 엑스포 개최를 추진 중인 2030년에는 충분히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치위의 설명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위해 UAM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유치위는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4월 예정된 BIE의 현지 실사 기간 UAM을 전시할 예정이다. BIE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로의 항해'라는 부산엑스포 주제에 대한 공감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어성철(왼쪽부터) 한화시스템 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유영상 SKT 사장,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사장이 협약식을 마친 후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SKT



더현대 서울 2주년 특별전

2023. 2. 4.(토) — 4. 27.(목)

David Jamin

다비드 자맹展 : A Dandy From The Provence

프로방스의 가장 따뜻한 색, 서울에 쏟아지다

유럽을 매혹한 <내면 자화상>부터 손흥민, 김연아 등 한국이 사랑한 아이콘까지,
150점의 오리지널 유화로 구성된 대규모 개인전

성인 1만 8,000원 | 청소년 1만 5,000원 | 어린이 1만 2,000원 현대백화점 APP, H.POINT 회원 20% 할인

전시 알아보기

THE HYUNDAI SEOUL ALT. 1

주최·주관 VIA CANVAS SEOUL
후원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면세점 | 한섬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리바트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이복현 금감원장〉

李 "이사회 정례 면담"… 금융권 "소통 아닌 관치 될 수도"

올해부터 이사회와 年 1회 면담
운영상황 점검…금융현안 논의도
금융사들 "경영 독립성 해칠 우려"
전문가 "관치 아닌 감독으로 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발표한 '2023 업무계획'의 주된 핵심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정조준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올해 금융사에 대한 개혁 압박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것도 금융당국의 '메스'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힌다. 다만, 당국이 경영진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과 이사회 내부통제 기능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 "직접 소통"=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이사회 기능 제고'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일부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위한)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된다는 것인지, 단순히 외부 헤드헌터에 의뢰해 그들에게 금융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건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며 "롱리스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에서 출발했다"고 지배구조에 메스를 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보다 미흡한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지배구조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 게 적정한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일단은 이슈를 공론화하고 선진국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서 일정 부분을 법제화나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부분은 새로 취임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승계 구도를 만들거나 이사회 자체에서 임기를 절제하는 등 자율성과 규제화 방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사회 개입이 '관치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이슈화된 만큼 제도화가 필요한 건 제도화하고 제도로 안 될 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한 단계 높여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경영진과 만남을 정례화해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회에 운영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실무단 소통도 구체화해서 제도화하고 정례화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연 1회 이사회와의 소통도 단순히 올해에 끝내지 않고 정례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한숨 "오히려 관치 될 수도"=금융사들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오히려 관치로 비쳐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사회를 만나고 스킨십을 하다보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자칫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융당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CEO가 누구인지 언급될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는 경영진 선발뿐만 아니라 업무,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관여하는 만큼 은행 업무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을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구성·선임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시장에서 친정부쪽 인사들이 대거 등용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그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온도차를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일부 금융지주에서 내부 경영진이 이사회를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됐는데 관치가 아닌 감독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같은 시도(이사회 운영 방식 등에 정부가 개입하는)는 전에도 여러 차례 했지만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면서 "이사회 역할은 강화하고 CEO의 권한은 약화하는 식으로 하면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유하영 기자 haha@

'은행 공적 역할' 강조한 李 /

"어려운 시기에 부적절" **'성과급 잔치'에 일침**
"중·저신용자들에 피해" **'배당 확대'도 부정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일각의 은행 배당 확대 요구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공적 영역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처럼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의 공공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 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nova@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 조직개편… '정권 맞춤형' 왜곡 차단

국민 중심 통계 혁신 추진

미래전략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전략 마련

지역통계기획팀
지자체 등 협업 지방화 시대 대응

통계등록부과
데이터로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

스마트조사센터
IT 조사기법 활용 맞춤형 통계



통계청이 '조작'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산출 방식과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6일 밝혔다. 혁신방안 수립과 미래전력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서다.

통계청은 이날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계청 자체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팀'도 신설한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와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위한 '스마트조사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우선 통계청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게 될 '미래전략팀'을 신설한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해 미래 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지역통계기획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도 이번에 신설한다.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해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위한 '스마트조사센터'도 신설해 통계조사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조사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반 조사기법을 개발·활용해 변화된 통계조사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응답 방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훈〈사진〉 통계청장은 "조직 개편은 국민 중심의 통계혁신 추진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래전략팀 신설에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계청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맞춰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이태원 참사 유족 "영정·위패 있는 분향소 차려달라"

분향소 철거 규탄 기자회견

유족들, 2차 계고장 수령 거부
"충돌·안전상 문제 가능성 없어
인도적 차원 분향소 설치 부탁"

서울시 "이태원 인근 추모공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향소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유가족협의회가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족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즉각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유가족 단체는 영정·위패가 있는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고장 수령을 거부했다.

6일 오후 1시께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합동분향소를 차렸을 때 영정과 위패가 없었다. 유가족은 정부와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한다"며 "지금 있는 영정과 위패와 함께 많은 국화꽃이 있는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분향소는 애초에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나아가 시민들이 줄을 서서 분향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충돌이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분향소에 난로를 반입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유가족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나와라.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일 참사 추모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하고 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후에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2차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유가족 측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측에서 이태원 인근 상징성이 있는 장소의 공공건물로 추모공간으로 마련하길 원했다"며 "게이트를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공간인 데다가 기후 여건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가족과 관계자 간 소통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빈 기자 chaebi@

미래車 핵심인재 3700명 키운다

산업부, 올해 315억 투입

정부가 올해 315억 원을 투입해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약 37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형 인재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소프트웨어(SW) 등 미래차 선도 인력을 양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도 전년 224억 원보다 40%가량 늘린 315억 원을 배정했다.

우선 '자동차+SW'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교에 자동차 SW 및 심화 교육을 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10일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열어 대학생들의 SW 기술 역량을 강화할 기회도 제공한다.

현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재양성도 다각화한다. 미래차의 보급 확산에 맞춰 사후서비스(A/S),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9억 원으로 편성해 208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와도 협업해 기존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해 총 20개 대학에서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올해부터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각각 육성한다.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고용부와 협력해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한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 현황 조사·분석도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W 융합인력 1만 명 등 총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0~5세 보육·부모급여…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부, 사회정책 추진계획

지방 '글로컬 대학' 지정 국고 지원
사회위기 대응 범정부 TF 구성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공공분양 34만 가구 공급 등 자산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도 지원하고 나선다.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6월까지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연결성 높인 갤북3… 프리미엄 비중 60%로 확대"

이민철 삼성전자 상무 '갤럭시 북3' 노트북 전략 브리핑

갤북3서 스마트폰·태블릿 제어
하나의 기기처럼 넘나들며 작업

"에코시스템 브랜드, 삼성 유일
최상위 '울트라' 모델 지속 확대"

"삼성전자 노트북 판매에서 1000달러 이상 프리미엄군의 비중을 현재 50%에서 10%포인트(p)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민철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 갤럭시에코비즈팀장(상무)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니코(Nikko) 호텔에서 가진 '갤럭시 북3 노트북 전략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3 울트라' 출시를 계기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최고사양 모델에 명명하는 '울트라'가 노트북 라인업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한 삼성전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상무는 "PC에도 드디어 울트라를 추가하면서 최상위급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울트라 제품은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뿐 아니라 연결성까지 최우선으로 한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트북의 전 세계 점유율은 1%에 그친다. 삼성전자는 2021년 첫 번째 갤럭시 북 시리즈를 내놓은 이후 2022년 20여 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갤럭시 북3 시리즈 출시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로 노트북 신규 라인업을 갤럭시 S 시리즈와 함께 언팩에서 공개한 것 역시 이러한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이번 갤럭시북3 시리즈는 '갤럭시 DNA'를 제품에 녹였다. 먼저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시리즈 최초로 도입해 생생한 색감과 선명도를 구현했다. 무엇보다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극대화했다.

이 상무는 "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의 사용자는 업무 수행 시 2가지 이상의 기기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응답했다"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PC 등 전 에코시스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신제품부터 '삼성 멀티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갤럭시 북3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 스마트폰과 태블릿PC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기기 간 파일을 손쉽게 옮길 수 있고, 텍스트 등 작업 내용 역시 복사해 붙여넣을 수 있다. 전작인 갤럭시 북2가 태블릿PC와만 연동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차원 발전했다.

그는 "제품 간의 연결성을 중요시하는 에코 시스템을 가진 브랜드는 삼성이 유일하고,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이기도 하다"며 "이것을 강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긴밀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갤럭시 북3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과 연결(Phone Link)' 앱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을 높였다. 갤럭시 북3에서 스마트폰 메시지와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에만 설치된 앱을 갤럭시 북3에서도 실행할 수도 있다.

이 상무는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PC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런 연결성과 성능을 가진 제품을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이다솜 기자 citizen@



이민철 삼성전자 MX사업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상무)이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북3 노트북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명품백부터 호텔 숙박권까지 이통사, 갤S23 사전판매 올인

오늘부터 13일까지 행사

저장 용량 2배 업그레이드
울트라 사면 갤워치 증정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가 사전판매에 돌입한다.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사전예약자를 잡기 위해 명품백, 호텔 숙박권, 스마트워치 등을 앞세워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S23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출시 모델은 △울트라 △플러스(+) △S23 등 총 3종이다. 크림, 라벤더, 팬텀 블랙 등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S23 울트라 12GB RAM에 256GB 모델이 159만9400원, 12GB RAM에 512GB 모델이 172만400원이다.

삼성닷컴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12GB RAM 1TB의 경우 196만2400원이다. S23 플러스 256GB, 512GB 모델 가격은 각각 135만3000원, 147만4000원이다. S23 256GB, 512GB 모델은 각각 115만5000원, 127만6000원이다.

삼성전자는 S23 시리즈를 사전 구매·수령 후 17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이 '삼성 멤버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 판매 혜택 신청 시 제공한다.

S23 256GB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 해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를 제공한다. 삼성닷컴에서는 S23 울트라 1TB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갤럭시 워치5' 44mm 블루투스 모델을 증정한다.

SKT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S23을 개통하고 응모한 고객 중 2323명을 추첨해 1등 15명에게 호텔에서의 VVIP 1일 체험권, 한샘 바우처 300만 원권, 듀오 커플 매칭 체험권 중 한 가지의 특전을 제공한다. 2등 33명에게는 BMW 드라이빙 체험 패키지, 3등 55명에게는 한정판 나이키 조던 운동화 등을 증정한다.

KT는 사전예약 구매 혜택으로 고객 총 2300명을 추첨해 지니뮤직 3개월 이용권(총 2100명)을 제공한다. S23 울트라 구매 고객에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지니 울트라 콘서트' 초대권을 증정한다. 만 29세 이하인 KT Y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갤럭시 필수 패키지'도 제공한다. 삼성 35W(와트) 듀얼 포트 충전기(케이블 미포함), 핑구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폰 거치대, Y아티스트 더스트백 등으로 구성된다.

LG유플러스는 S23 캠페인 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고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숙박권, 갤럭시 버즈2 프로, 삼성 정품 고속 충전기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공식 온라인 몰인 '유플러스닷컴'에서는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를 실시해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샤넬 스니커즈 등을 선물한다. 온라인 구매 후기 작성 시 선착순 3000명에게는 '카카오페이 포인트' 5만 원권을 지급한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조성준 기자 tiatio@



대통령실 경고에…잠수 탄 〈안철수〉安 "당원 판단 맡길 수밖에"

與 전대, 정치판 '더 글로리'?

安 "'안윤연대'란 표현 쓴 적 없고 대통령과 동격이란 생각도 안해"

상황 점검 위해 오후 일정 순연

전문가 "安 전대 지지율 떨어져야 대통령실 부정적 시그널 멈출 것"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6일 돌연 사라졌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표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포화를 퍼부은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라며 "정치판 '더 글로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일정을 차례로 순연했다.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뒤 서울 영등포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안철수 캠프는 "상황점검 및 정국구상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공개일정 중단'을 선언한 뒤 본지와 통화에서 "결국 판단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안윤연대'(안철수-윤석열)라는 말은 쓴 적도 없는데, 안윤연대를 포함해 (윤핵관 등 일부 말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동격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동격이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안 쓰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대해선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는 듯했다. '왜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글쎄요. 저도 잘 모르죠"라고 답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이간질인가'라는 물음에도 "글쎄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친윤계는 한층 수위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작은 배 하나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좌초시킨 사람이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되겠다고 한다"며 쏘아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을 갈라치는 것에 대해 말했고, 윤안연대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당원들에게 '안철수 의원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내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이 신영복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미리 알았다면 (대선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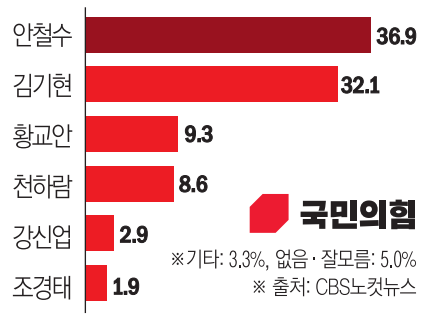
거세지는 친윤계 공격에 정치권 안팎에선 부정적 여론이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계속 이렇게 하면 민심이 돌아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라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하루 숙고한 뒤 내일 다시 공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

(단위: %, **당 대표 선출방식: 당원투표 100%**)

※ 조원씨앤아이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2월 3~5일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 응답률 3.0%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때도 잡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3월 14일 임시 집무실에서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실 "安, 인수위 전부터 불협화음"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국무총리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조각(組閣) 당시 발생한 불협화음 탓에 안 의원을 신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을 당시 조각을 두고 불협화음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중대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로 윤석열 정권과 스탠스를 맞출 최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 의원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읽힌다.

안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로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옮기겠다는 뜻인데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총리를 제안 받은 적이 없다. 인수위원장과 총리는 동시에 할 수 없고 인수위원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의원은 인수위원장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 이미 정부를 짤 때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당 대표로 나와 '안윤연대(안철수·윤석열 연대)'라면서 원래 찰떡궁합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심(윤 대통령의중)'에 안 의원은 안중에 없다"며 "합을 맞추기도 어렵고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안 의원이 당권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친윤(親 윤석열) 측에서 안 의원에 비판을 제기하는 건 오히려 안 의원이 승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비판을 제기하는 건 전당대회에서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익명의 관계자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 나올수록 (윤심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에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uknow@

국민의힘 당권 주자 천하람, 윤핵관 퇴진시위

국민의힘 당권주자 천하람 후보는 6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간신배'라고 한 표현한 것을 당 지도부가 제지한 데 대해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라고 비판했다.

천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피케팅 선전전'을 했다. 이들은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 도우미',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간보지 않는 소신정치'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 보좌진들과 시민들에게 당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천 후보는 "그런 용어(윤핵관·간신배)를 막는다고 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우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간신배에 대한 국민 불만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 전당대회가 당을 지지하지만, 당에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불만까지도 다 끌어안아 폭 넓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행정안전부〉

野,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해야 가결

본회의 상정되면 충분히 가능

與 "할 말 없다…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3당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후 모바일투표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럴 줄 알았다는 말밖에 더는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고 반발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눈 감은 이상민 장관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 길이 있다

데이터가 세상으로 뻗어가는 길
새로운 ICT의 내일이 열리는 길
당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길

우리는 반도체 안에서
미래의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반전’ 노리는 한전… 내년엔 적자 탈출하나

지난해 누적 적자 30兆~34兆 전망
전력그룹사 11곳과 비상경영 가동
올해 재정건전화 목표 3조3000억
5년간 20兆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전기요금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도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력공사가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 정부의 지원책과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물가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면 적자 탈출은 당분간 요원할 수 있다. 한전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가면서 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안에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각종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은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한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한전은 늦어도 다음 주 중 4분기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매출, 영업적자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341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4분기 전망도 어두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4분기 영업적자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한전의 4분기 영업손실은 9조3413억 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도 한전의 영업적자를 10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3일 11개 전력그룹사와 함께 회의를 열고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30조~3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내년 중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올해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때 드는 부담을 줄였다. 동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탄력 운영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줄였고 재정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 등도 진행 중이다. 내년 중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가격 부담도 줄어들 거란 전망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큰 긍정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다. 요금 인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연료비 등 총 인상요인은 1kWh당 51.6원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한전이 내년 안에 흑자를 노려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기별로 고르게 나눠서 요금을 올리면 올해는 1조3000억 원 적자가 생기더라도 내년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기요금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든다. 3년간 균등하게 올린다고 가정하면 올해 영업적자는 14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적자액이 감소한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oon@


노후아파트 ‘난방 효율’ 점검 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노후 아파트 난방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로 난방설비의 열손실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튜브·인스타 등 SNS 뒷광고 기승
공정위 “악의적 위반행위 엄정 제재”

위반 게시물 2만1037건 적발
인스타그램 9510건으로 최다

#유명 유튜버인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모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소개했다. 해당 제품을 호평하며 구독자들에게 구매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제품은 자신이 산 제품이 아니라 업체에서 협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화면 배너에 ‘협찬 제품’이라고 표시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란 인플루언서 등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2022년 4~12월)’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건수는 총 2만1037건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공정위가 2019년 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이슨코리아 등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잇달아 제재한 이후에도 여전히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적발 건 중 633건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이 향후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협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9924건)이 가장 많았고, ‘표시내용 불명확’(8681건), ‘표현방식 부적절’(5028건), ‘미표시’(35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2021년 결과와 비교해 자진 시정 유도로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41.3%→17.0%)한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비율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 등으로 증가(10.0%→41.3%)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월 국제선 항공여객, 코로나 이전 60% 회복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늘어
일본·동남아 노선 수요 ‘껑충’

국제선 운항 편수와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 운항노선이 대폭 확대된 결과 1월 국제선 운항 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1월) 대비 약 60% 회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설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결과다.

일본의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역규제 폐지와 함께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1월 여객 수가 133만 명에 달했다. 지난해 8월(16만 명) 대비 약 8.3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2020년 1월)보다도 약 10.8% 더 많았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시아 노선 여객 회복률은 66%(218만 명)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폐지해 항공운항 회복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중국발(發)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회복률은 8%(10만 명)에 그쳤다.

1월 기준 국내선 여객 수는 264만 명으로 해외여행 수요 증가, 폭설·강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 같은 달보다는 3.7% 많았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미세먼지 잡는 지하철’ 달린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4차 대책
내년 ‘주행중 집진차량’ 시범운용
2027년 미세먼지 농도 17% 저감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지하철이 내년 시범 운용된다. 또 승강장 대기 이용객의 오염물질 노출 감소를 위해 인접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한 곳에 모으는 기술도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춘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으며 어린이집은 12.7㎍/㎥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에 달했다.

우선 내년부터 주행 중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장치를 전동차 하부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승강장에 대기 중인 이용객의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승강장 인접 터널에서 발생하는 먼지 집진 기술 시범 개발도 적용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 하청 임금 올려야”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생산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로 결정했으며,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요 조선사 원·하청을 포함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금개혁, 英·佛도 몸살… '글로벌 이슈' 시간문제

프랑스 지급수령 나이 연장 논의
1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 촉발
英, 나이 상향 속도 가속화 검토
추가징수 거론, 노조 거센 반발
"OECD 대부분 은퇴 연령 상향"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1일 시민들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신화뉴시스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유럽도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금개혁은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에선 6일부터 연금 지급 수령 기준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 프랑스 곳곳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연금개혁을 놓고 갈등이 촉발된 상태다.

시민들과 노동조합은 정부가 국민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다.

상황이 이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은퇴 나이를 64세에서 63세로 한 살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자국 매체 JDD와 인터뷰에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안도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20~21세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63세에 은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은퇴 나이를 상향하려는 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지속하는 고령화에 은퇴 이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부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연금개혁으로 은퇴 나이를 높이면 경제적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매체 RFI는 "프랑스 실업자 4분의 1이 50세 이상"이라며 "고령자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개혁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선 2030년대 은퇴 나이가 66세에서 68세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기존 현행법대로라면 연금 수령 나이는 2028년 67세, 2044~2046년 68세로 상향하는 게 맞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되면서 정부가 이보다 10년 이상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최근엔 300만 명 공공 근로자에게 최대 190억 파운드(약 29조 원)의 연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편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없다면 노동자의 연금 혜택이 늘거나 연금 기여금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옵션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도 이달 이미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이 시작한 만큼 연금개혁 이슈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나아가 연금개혁 문제는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은퇴 나이는 남성 64.3세, 여성 63.5세다. OECD는 이들 국가의 은퇴 나이가 2060년대 중반까지 평균 2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유로뉴스는 "은퇴 나이 상향은 프랑스에서만의 추세가 아니다"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은퇴 연령 표준은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건물 깔려 아비규환… 사상자 속출
튀르키예, 사상 최대 7.8 규모 강진

3만명 숨진 1939년 동일 규모
시리아, 내전에 인명구조 난항
레바논·이스라엘도 강한 여진

튀르키예에서 규모 7.8로 사상 최대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속출했다. 규모 7.8은 튀르키예에서 약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939년 당시 지진과 같은 규모다.

지진은 튀르키예와 맞대고 있는 시리아 북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양국에서만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도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각각 최소 2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총 568명이 숨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가 최대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시민이 다수 있는 만큼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리아 피해 지역의 경우 10년 넘도록 내전이 발생한 곳으로, 400만 명의 난민이 밀집한 반군 지역이어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는 지역민을 인용해 "이들 다수는 보건 관리를 거의 받지 않고 낙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구조 당국에 긴급 대응을 명했다. 또 피해 지역이 반군 점령지인 점을 고려해 시리아 시민 방위대로 알려진 '화이트 헬멧'이 해당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색에 동참하기로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수색구조대가 즉시 피해 지역에 파견됐고 모든 관련 부처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재난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진 여파는 주변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CNN방송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여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홍콩 최대 규모 국보법 재판 시작
홍콩에서 6일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린 가운데 민주진영 단체인 '사회민주연선'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90여 일 간 진행될 재판은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 재판이다. 47명 인사는 2020년 7월 민주진영 단일 후보를 정하는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AFP연합뉴스

'완화 설계자' 아마미야, 日銀 총재 유력… 엔화 급락

디플레이션 시대 완화 정책 고수
엔화가치 지난달 12일 이후 최저
아마미야 부상에 약세 가속 우려

일본은행(BOJ) 최장수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78)의 후임으로 현직 부총재인 아마미야 마사요시(67·사진)가 급부상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아마미야를 BOJ 차기 총재로 임명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며, 인사안의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여당과의 협의를 서둘러 인사안을 이달 중으로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차기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등 양원의 인준을 거쳐서 최종 임명된다.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현 총재는 4월 8일을 끝으로 임기가 끝난다.



아마미야 임명 배경을 두고 닛케이는 "차기 총재는 일본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피하고 정책 수정을 하기 위해서 풍부한 통화정책 관련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현직 부총재이자 이차원 완화정책에 관여해온 아마미야를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마미야 부총재가 일본은행 차기 총재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그가 일본은행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 초반 1% 오른 132.56엔까지 치솟아 지난달 12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아마미야가 차기 총재가 되면 지금의 완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기획 담당 이사와 부총재를 맡아왔다.

그는 기획통으로 △2001년 양적 완화 정책 △2010년의 포괄적 금융완화 △2013년의 이차원 완화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장단기 금리조작 정책에 이르기까지 디플레이션 시대의 통화정책에 대부분 관여했다. 한 마디로 일본은행 통화 완화정책의 설계자인 셈이다.

그는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나카소 히로시 전 일본은행 부총재, 야마구치 히로히데 전 부총재보다 좀 더 '비둘기파' 성향이 짙다는 분석도 많다.

앞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장단기 금리조작이 한계에 달해 차기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오다 지난해 엔화 가치 급락 등으로 치솟은 물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본 물가상승률은 4%에 달해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마미야의 부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불안이 고조됐다. 노디아뱅크의 데인 세코프 선임 전략가는 "아마미야가 차기 총재가 수장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은행이 곧바로 통화 완화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는 정부가 더 매파적인 진영의 인물을 선택하기를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中 부동산 개발사들, 7년 만에 최악 성적표

전체의 60% 지난해 적자 예상

중국 부동산 위기가 여전하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례 없는 주택 가격 침체와 건설 중단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난해 최소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60개 중국 본토 상장 부동산 회사의 60%가 지난해 적자를 예상했다. 30%도 순이익이 줄었다. 전체 상장사 중 5%만이 전년보다 순이익이 증가했고, 나머지 5%는 흑자로 전환했다.

가장 큰 손실을 본 회사는 룽성부동산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5배 늘어난 250억 위안(약 4조57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낸 스마오그룹의 본토 사업부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 중 일부도 순이익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매출 기준 중국 최대 국영 개발업체인 바오리부동산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3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CB인터내셔널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국영기업의 실적이 부동산 부문 주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에 이익을 낸 회사들도 일회성 수입 영향이 컸다.

지난해 가장 큰 순이익을 올린 부동산 기업은 16억 위안의 흑자를 낸 화샤싱푸다. 화샤싱푸는 채무조정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해 170억 위안의 순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인 기자 oin@

“놀이기구 탔는데 911 신고”…아이폰 자동충돌감지 골치

美 911신고센터 허위신고 급증
콜로라도선 전년比 2배 넘어서
애플 업뎃했지만 문제 지속돼
신고센터 “긴급 상황에 위협”
NYT “상당한 시일 걸릴 듯”

애플 아이폰14와 애플워치의 ‘자동충돌감지기능’으로 미국의 911 신고 센터에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폰14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된 자동충돌감지기능으로 911 허위 신고 사태가 크게 늘어나 심각한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애플의 자동충돌감지기능은 심각한 자동차 충돌 등이 감지되면 아이폰 14와 애플 워치 등에 경고가 표시되는 기능으로 사용자는 10초씩 두 번에 나눠 나타나는 경고 알람 등에 반응해야 한다. 만일 총 20초간 진행되는 두 번의 경고 알림에 반응이 없으면 911 응급신고센터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된다.

애플은 허위 호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콜로라도 서밋 카운티(Summit County)의 911 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리나 덤머(Trina Dummer)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종일 충돌 알림을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85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고 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아이폰14에서 자동충돌감지기능이 작동한 모습. 사진제공 애플

그러면서 “이러한 ‘맹공격(Onslaught)’이 911 신고센터를 ‘무감각(desensitize)’하게 만들고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위협(threatening)’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보안관 마크 왓슨(Mark Watson)씨도 현재 자신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폰14의 자동충돌감지기능으로 인한 허위 호출 사례는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자동충돌로 잘못 감지되는 사태가 나타났으며 놀이공원은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라’고 안내판을 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콜로라도, 유타, 뉴욕,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와 같은 다른 스키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었다.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주장하는 12월의 소프트웨어 ‘최적화(Optimized)’로 911 허위 신고가 감소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애플이 추가 최적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모든 사용자가 업데이트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burning@

반도체에 발목 잡힌 기아 광명1공장 4일간 멈춘다

반도체 활용 부품설비 문제
약 3000대 생산차질 불가피

기아 광명오토랜드(광명공장)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단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던 반도체 관련 부품의 공급이 멈춘 탓이다. 이 기간 3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기아 고위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안전 관련 부품의 수급난으로 일부 차종의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며 “2월 둘째 주 들어 단계적으로 생산을 축소하고 목요일(9일)부터는 불가피하게 1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까지 관련 부품에 대한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셋째 주 월요일(2월 13일)은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1월 노조 측과 합의한 2월 둘째 주 주말 특근(2월 11일) 역시 미뤄지게 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연산 31만 3000대 규모로 1~2공장이 맞물려 있다. 1공장에서 4세대 카니발(KA4)을 비롯해 스포츠 세단 스팅어(CK), 대형 세단 K9(RJ) 등을 생산 중이다. 2공장은 수출형 소형차 생산한다.

광명1공장의 경우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매달 1만4000대 안팎의 완성차를 생산한다. 조업일 수 기준, 나흘 동안 공장 가동이 멈추는 것으로 고려하면 생산 차질은 약 3000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1공장에서 매달 6000대 수준의 수출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1000대 넘는 수출물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명1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출고 대기기간(2월 기준)은 △카니발(6개월 이상) △스팅어(3~4주) △K9(4~5주) 등이다. 이번 조업으로 이들의 출고 대기기간은 다소나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업중단은 반도체가 모자라는 게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사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관계자는 “1년 넘게 이어져 온 반도체 공급난 탓에 서플라이어(부품 공급사)들의 생산설비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며 “이번 부품 공급 문제도 반도체가 모자랐다기보다 반도체를 활용해서 만드는 부품 생산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LG전자, 고효율 공조 솔루션 앞세워 美시장 공략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참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양한 상업용·가정용 신규 공조 솔루션을 통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6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AHR 엑스포’는 미국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약 330㎡(약 10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다. 전시장에서는 상업용 공조 신규 솔루션과 시스템에어컨 신제품, 벽걸이형·카세트형(천장형 실내기)의 다양한 친환경 무풍에어컨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DVM 하이드로 유닛’은 시스템에어컨인 DVM 실외기에 연결하면 냉·난방뿐 아니라 최대 80℃의 온수 공급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냉난방 성능과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DVM S2 맥스 히트’ 제품도 전시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벽걸이형과 1Way·4Way 카세트(천장형 실내기)형 무풍에어컨 라인업도 소개한다.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은 친환경 기능을 강화했으며, 스마트 싱스 에너지 서비스의 ‘AI 절약 모드’를 새로 적용했다.

LG전자 역시 AHR 엑스포에 총 630㎡ 규모의 공조솔루션·부품솔루션 전시관 등 2개의 전시 부스를 각각 마련했다.

LG전자는 고성능 AI 엔진을 갖춘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신제품 ‘멀티브이 아이’를 비롯해 △실외공기전담 공조시스템(DOAS)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써마브이’ △가정용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 △인버터 스크롤 히트 펌프 칠러 등 2023년형 공조솔루션을 소개한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에서 다양한 상업용·가정용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위 사진). LG전자는 엑스포에서 총 630㎡ 규모 공조솔루션·부품솔루션 전시관을 마련했다(아래 사진).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LG전자에 따르면 멀티브이 아이는 실내 공간케어, 에너지 맞춤제어, 스마트케어 등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상을 받은 실외공기전담 공조시스템은 상업용 환기 시스템에 제습, 냉각, 가열 기능을 더해 시설물 내부 공기의 온도·습도를 동시에 제어한다.

강태우 기자 burning@

현대차, 택시업계 손잡고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택시업계와 손잡았다.

현대차는 6일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MaaS(여러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및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플랫폼 생태계에서 택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한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이 셔클 앱 하나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무료 택시호출 서비스, 통합 요금제 등 택시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택시업계의 신규 서비스 런칭 및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택시연합회는 1654개에 달하는 전국의 법인 택시업체들이 셔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2021년 선보인 국내 첫 인공지능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서비스 ‘셔클’을 향후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미래 이동 수단까지 포함하는 MaaS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민재 기자 2mj@

영업익 반토막 난 SKC “화학사업 부진 탓”

영업익 2203억…매출은 39%↑
올해 美·유럽 고부가 제품 공략

SKC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203억 원으로 전년보다 45.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화학사업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매출은 3조1389억 원으로 전년보다 38.6% 늘었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이차전지와 반도체 소재 등 미래 사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4분기보다 18.8% 늘어난 835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4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동박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은 지난해 매출 8101억 원, 영업이익 986억 원을 기록했다. 정읍 6공장 가동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SK넥실리스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 중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해 외형과 수익성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SK피아이씨글로벌, SK피유코어를 중심으로 한 화학 사업은 지난해 매출 1조 7046억 원, 영업이익 1409억 원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화학 업황의 부진으로 전년보다 영업이익은 57.6% 줄었으나, 매출은 54.7% 늘었다.

SKC는 올해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장기 공급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고부가 친환경 소재인 디프로필렌글리콜(DPG) 단독공정을 상업화하고, 12월 업계 최초로 폴리우레탄 단열재의 공식 준불연재료 적합 시험성적을 획득하는 등 화학 사업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시각장애인用 '촉각 패드' 닷, 美 이어 중동 수출길 연다

손가락 촉감으로 이미지 인식
특허 120개…CES 최고혁신상
중동 10조 시장… UAE와 논의
"올 수출 목표 200억 달성할것"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닷' 부스를 방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패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용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닷이 올해 수출 200억 원 목표로 사업을 강화한다. 지난 2021년 미국과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현재 아랍에미리트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독보적인 기술력에 벤처 투자 혹한기에도 후속 투자가 이어지며 누적 투자액은 300억 원으로 늘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벤처기업 닷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현재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닷은 중동에만 10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닷은 해당 계약을 포함해 올해 200억 원 이상을 수출 실적 목표액으로 잡고 있다.

닷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핵심 기술인 '닷 셀'을 활용해 다양한 보조기기 제품을 만들어온 닷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촉각 디스플레이(닷 패드)를 선보였다. 닷 패드는 총 2400개의 핀이 PC, 모바일 화면 속 도형, 기호, 표, 차트, 지도 등 시각 자료를 촉각 그래픽으로 표시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손가락 끝의 촉감으로 그림과 이미지 등을 만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 관련 기술로 현재 120개 가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닷은 이 기술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접근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ES 최고혁신상은 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3000여 개 기업 중 20개 사에만 수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는 올해 5개 기업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앞서 닷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미국과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부터 4년간 미국 교육부를 통해 현지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 학교에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이다. 계약규모는 약 300억 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술력을 극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일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 대표 4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 직전 최고혁신상 수상한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했다. 김주윤 닷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로 촉각 모니터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촉각화 돼 서명을 보실 수 있다"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닷 패드에 서명을 한 뒤 패드를 만져보는 등 제품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김 대표를 향해 "대단하다"고 극찬했다.

고금리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 삭감 등으로 벤처업계 투자가 잔뜩 움츠러든 상황에도 닷은 최근 시리즈 B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인터베스트, 새한창투 등으로부터 총 13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닷의 누적 투자금액은 총 300억 원으로 늘었다.

닷은 최근 김윤 새한창업투자 박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박사는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2013년 애플이 노바리스를 인수한 뒤 시리의 음성 인식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이끈 인물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솔루스첨단소재, 바이오 대신 동박 주력

전자소재 전문 기업 솔루스첨단소재가 주력 사업인 동박 사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동박은 집적회로(PCB)와 통신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비주류 사업이었던 바이오소재 매각도 이뤄진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는 바이오소재 제조·판매업 자회사인 솔루스바이오텍을 영국 화합물질 생산업체 크로다에 3500억 원에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유지분 전부(750만 주·100%)를 매각한 것으로 비주력 사업의 정리가 이뤄진 셈이다. 양도일은 3월 31일께가 될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향후 동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 대금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설비투자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2차전지용 동박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이다. 2차전지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용량화를 위해서는 고강도 동박이 필요하다.

동박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최소 3년간 더 지속될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2025년 전지용 동박 수요는 159만톤으로, 올해보다 3.5배가량 늘어난다.

물량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들고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한국 업체들의 기술적 차별화가 돋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쟁력 제고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우람 기자 hura@

코로나·전쟁·인플레 등 겹악재에도
중견기업 66% "작년 목표 실적 달성"

457곳 설문…"올해도 어려울 것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시급"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복합 위기에도 지난해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연초에 목표했던 경영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에 게재한 '중견기업 신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6%의 중견기업들이 연초에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20%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50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22%의 응답자가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24%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중견기업인의 평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은 52%로 나왔지만 '잘한다(26%)'와 '매우 잘한다(6%)'가 32%로 16%에 그친 '못한다(10%)'와 '매우 못한다(6%)'의 두 배였다.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위기가 기회 됐다”… K제약·바이오, 역대급 실적 릴레이

팬데믹 시대 내실 다진 기업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다져진 내실을 증명한 K제약·바이오가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올해는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 제약사부터 대기업 바이오계열사에 이르기까지 외형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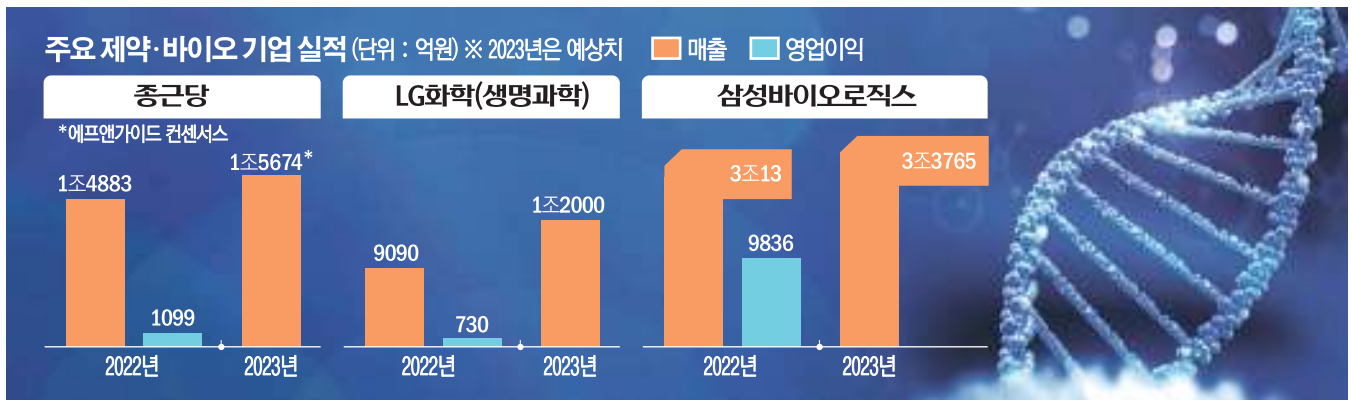
종근당은 매출액 1조48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속 매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2019년 1조 원을 처음 돌파한 종근당은 2020년 1조3030억 원, 2021년 1조3436억 원에 이어 2022년 10%대 확대에 성공했다. 영업이익은 10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 늘었다. 이는 2020년(124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3889억 원)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3년 만에 찾아온 독감 유행으로 ‘타미플루’의 처방이 급증한 덕분이다.

영업력에 기반을 둔 제품과 상품의 고른 성장이 실적 확대를 이끌었다. 주요 품목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주’,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젯’, 뇌혈관질환 치료제 ‘글리아티린’,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 등이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쓸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종근당의 2023년 매출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는 1조5674억 원이다.

기존의 만성질환 포트폴리오에 신규 출시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주’, 약가 협상 중인 위염치료제 천연물 신약 ‘지텍’ 등이 더해지면서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종근당, 2019년 매출액 첫 1조 지난해 40% 상승한 1.5조 달성

LG화학 매출 20%↑… 1조 눈앞 유트로핀·제미글로 안정적 성장

삼바, 업계 최초 연매출 3조 돌파 26개 고객사와 CMO 계약 논의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다시 쓸 듯

LG화학의 제약·바이오사업을 담당하는 생명과학사업본부도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렸다. 매출액은 90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며 1조 원 고지에 다가섰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0억 원으로 9.0% 증가했다. 대표 품목은 성장호르몬 ‘유트로핀’과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로,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유셉트’도 현지 시장 점유율 40%를 돌파한 캐시카우다. B형간염백신, 소아마비백신 등 기초백신 위주의 백신사업도 순항 중이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글로벌 사업 확대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는 인수절차를 마무리한 미국의 항암신약 기업 아베오파마슈티컬스의 매출이 가세한다. 연매출 목표치는 1조2000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베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2100억 원”이라며 “생명과학사업본부도 자체적으로 10% 가까이 성장해 1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여기에 아베오가 더해지면서 1조2000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겠단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3조 원 돌파에 성공하며 이번 실적 시즌의 기분 좋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연결기준 매출액 3조13억 원, 영업이익 9836억 원을 기록했고, 별도 기준 매출 2조4373억 원, 영업이익 9681억 원을 실현했다.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을 전체 가동해 60만4000리터의 압도적인 위탁생산(CMO) 역량을 완성한다. 현재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의 CMO 계약을 논의 중이다. 이를 반영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예상 매출액을 3조3765억 원으로 제시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언제 어디서나 내 의무기록 확인할 수 있어야죠”

메디컬 줌인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

의료 EMR 서비스 ‘오름차트’ 보안·백업 강한 클라우드 활용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램 설계 시리즈B 투자까지 247.5억원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가 자사의 클라우드 EMR 서비스 ‘오름차트’를 소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는 모바일로 편하게 이용 가능한데, 의무기록을 보려면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하는 서비스를 의료계에 도입하자는 것이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이죠. 이제는 환자가 의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든 원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EMR 서비스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 최근 본지와 만난 위 대표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다. 네이버 검색광고 사업, SK텔레콤 T전화 서비스 등을 성공시킨 이력을 바탕으로 2018년 회사를 설립했다. 지금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성공 스토리를 쓰고자 노력 중이다.

회사는 2021년 1월 ‘오름차트’라는 클라우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EMR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름차트는 기존 EMR과 달리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백업에서 강점이 있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여러 명이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다. 위 대표는 IT업계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자리잡은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의료계에는 도입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위 대표는 “자신의 의무기록을 환자가 관리한다면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모든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보다 병원과 병원이 연결될 수 있게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전달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름차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고, 화면 구성에도 철학을 담았다. 위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구조를 가졌다. 단순히 기능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방식을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설립 후 주변에서 모두 실패를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시리즈 B 투자까지 완료해 투자금액만 247억5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엔 200억 원을 목표로 시리즈 C 투자를 진행한다. 세나클소프트는 ‘오름차트’의 전체 구조 개발과 EMR을 통해 개인건강관리서비스(PHR)까지 가능하게 하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투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위 대표는 “올해 내에 자사의 EMR 시스템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웬만한 대형병원 외래환자 수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보안도 뛰어나고, 처방과 청구 등 의사들의 고민도 완벽히 해결해 가장 뛰어난 EMR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헬스케어 분야 특성상 시스템과 정부와의 연동도 중요하다. 다만 업계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다. 그는 “자격조회, 청구, 약재 정보 등을 알아야 하는데 정부 연동방식이 너무 오래됐다. 오픈 API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보다 빠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도 자주 바뀌는데, 미리 공지해줬으면 한다.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한다”며 미소 지었다.

향후 목표도 분명하다. ‘단순 EMR 사업’이 아니다. 위 대표는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로 또 데이터를 쌓으면 이 가치를 알아주게 될 것이다.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활용 측면에서도 그는 “개인으로 본다면 의무기록이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보면 다르다. 클라우드 EMR이 활성화되면 가족들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가족 입장에선 궁금하다. 서비스가 잘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노상우 기자 nswreal@

차세대 항암제 개발 나선 종근당 네덜란드 생명공학 기업과 맞손

시나픽스, 1650억원 규모 ADC 기술 도입계약 체결

종근당이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 기술을 도입해 항암 신약개발에 나선다.

종근당은 네덜란드 생명공학기업 시나픽스(Synaffix B.V)와 ADC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개발, 허가, 판매 마일스톤 등 약 1억3200만 달러(약 1650억 원)로, 상업화 이후 판매에 대한 단계별 로열티는 별도 책정된다. 계약에 따라 종근당은 시나픽스의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 3종(GlycoConnect·HydraSpace·toxSYN)의 사용권리를 확보해 ADC 항암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나픽스 ADC 플랫폼 기술은 항체에 정확한 숫자의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접합시키는 위치특이적 결합방법(site-specific conjugation)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항체 변형이 필요한 다른 기술들과 달리 기존에 발굴한 항체를 변형 없이 ADC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ADC보다 우수한 효능을 가진 반면 독성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이 해당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ADC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종근당은 2019년부터 시나픽스와 경쟁력 있는 ADC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기존 ADC 대비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을 가진 ADC를 확보해 왔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소세포폐암 신약 캄토벨을 비롯해 항암 이중항체 CKD-702 등 다양한 항암제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며 “시나픽스와의 계약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보령 예산공장, EU-GMP 인증 획득

항암주사제 생산시설 대상

보령은 예산공장 항암 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EU-GMP(유럽연합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독일 함부르크 주정부 의약품 허가기관 심사를 받아 진행됐다. 인증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장 실사도 했다.

보령은 유럽 내 의약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허가기관을 통해 GMP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은 물론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항암제 수출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암 주사제 생산시설은 2019년 준공돼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Vial)을 생산할 수 있다.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아이솔레이터 시스템(Isolator System)’을 갖췄다. 아이솔레이터는 작업자와 생산라인의 가림막 개념으로, 유해 성분이 작업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준다.

국내에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승인 후 같은 해 12월 말부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벨킨주’(성분명 보르테조밉)를 시작으로 항암 주사제 생산을 본격화했다.

박경숙 보령 생산품질부문장은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 캠퍼스가 보령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고팍스·엑스플라 정상화 한 발… "이제 한 고비 넘겼다"

'FTX 파산' 벗어나는 가상자산

고팍스, IRI 통한 투자 유치 계약
엑스플라, 피해구제 거버넌스 통과
회복 결실… 두 번째 고비 우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11월 'FTX 파산 사태'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다. 고팍스와 엑스플라가 최근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에 결실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두 번째 고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FTX 기관 채권자 명단에 다양한 국내 기업이 이름을 올리면서다. 업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된 정보가 없지만, 치명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TX 파산 여파'로 위기를 겪던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하나둘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고팍스'와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가 최근 정상화에 한발 다가선 것이 대표적이다.

고팍스는 3일 공지를 통해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IRI)을 통한 투자 유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파이' 상품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팍스는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FTX가 파산하면서, 고파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미국 기업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제네시스)에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다. 이로 인해 고파이 고정형·자유형 상품에 가상자산을 맡긴 일부 투자자가 원금 및 이자를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바이낸스는 이번 투자로 고팍스 지분의 상당량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팍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경영이나 사업 방향성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양사 모두 고파이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중"이라면서, "(인수 등)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공유된 바 없으며, 이후에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스플라 역시 최근 피해자 지원 물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및 투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큰 고비를 넘겼다. 앞서 엑스플라는 이번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론에 휩싸인 바 있다. 책임론은 메인넷을 테라 기반에서 자체 메인넷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마이그레이션(메인넷 변경) 작업이 FTX 위기설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8일에 완료되며, 이 기간 동안 출금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변경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소가 출금을 재개하지 않은 채 사태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엑스플라 측이 위험성에도 마이그레이션을 강행·방치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컴투스홀딩스 사옥 앞 집회를 계획하기도 했다. 다만, 엑스플라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 공유와 함께 실제 과정이 차츰 진행되면서, 현재 비판 여론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컴투스홀딩스 측은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투자자들의 소유 여부만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확보한 물량을 피해자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내 업계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FTX 사태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공개된 FTX 채권자 명단에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삼성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 정부 기관인 환경부까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해당 명단에는 구체적인 채무 관계의 성격과 형태, 규모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두 번째 고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FTX에 투자를 하거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빗썸 관계자 역시 "아직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면서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직까지 정확한 채권의 성격이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수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의 치명적인 위기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다. 해당 명단이 투자 외에도 단순 비용 미지급이나 세금 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리스크가 크려면 FTX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이 유입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미 재무제표 등에서 윤곽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당장 FTX 측이 기관 채권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 등 정상화에 있어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큰 파장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국내 'FTX 파산 여파' 기업 및 규모

주요 기업	피해·채권 규모	비고
고팍스	제네시스에 맡긴 고파이 원금·이자 출금 지연. 고정형·자유형 상품 총합 600억원↑ 예상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IRI) 펀드 투자 유치. 고파이 자금 전액 상환 가능한 규모
엑스플라	FTX거래소 내 엑스플라(XPLA) 코인 출금 불가. 총 3200만개 추정(220억 원 규모)	리저브(예비 물량) 통한 지원 과정 진행 중. 투표 통과로 '소유 증명' 후 지급
두나무	자세한 채권 규모 알려진 바 없음	특금법(KYC) 시행 전 발생한 FTX 관계사 세금 문제로 추정
빗썸(비티씨코리아)	자세한 채권 규모 알려진 바 없음	내부 확인 중. "시기상 큰 규모 아닐 것"
삼성넥스트	2021년, 4억2000만달러 규모 FTX 시리즈 B-1 펀딩 라운드 참여.	자세한 투자 규모는 비공개. "운용자금 대비 소액"
김앤장, 삼일PwC, 환경부 등	자세한 채권 규모 알려진 바 없음	대체로 '직접 투자' 아닌 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채권자 명단 포함된 것으로 추정



"시스템관리 전문가 1800명 한자리에"… LG CNS '통합 IT서비스센터' 오픈

고객경험 혁신 추진 허브로

LG CNS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IT서비스센터'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가양동 증미역 NH서울타워에 위치한 '통합 IT서비스센터'에는 LG CNS와 전략 협력사의 시스템관리, 시스템통합 전문가 약 1800명이 입주한다. 기존에는 이들이 고객·기능별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했지만, 통합센터를 통해 한 공간에서 시너지를 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LG CNS의 DX 전문가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 IT서비스센터'는 LG CNS DX 전문가들이 고객경험 혁신을 추진하는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현신균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업의 중심인 SM, SI 등에서도 고객가치 중심 문화를 정착하고, DX기술을 활용한 IT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LG CNS는 이상징후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사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에서 이상징후를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이상징후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IT서비스센터를 통해 LG CNS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AM)도 가속화한다. AM은 기존 방식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미래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도입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서비스로 나눠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 개별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사항을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간으로 반영 가능하다. AM을 적용한 고객들은 민첩한 서비스 재구성, 지속적인 신기술 수용이 쉬워져 뛰어난 품질의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다.

LG CNS는 '통합 장애대응 체계'를 갖춘 '워룸(War-Room)'도 운영한다. 워룸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DX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장애 상황에 대비한 훈련 공간 또는 주요 프로젝트 통합 상황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통합 IT서비스센터는 고객에게 최상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DX 핵심 허브"라며 "LG CNS의 DX전문가들이 전문역량을 키우고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LG CNS DX전문가들이 '통합 IT서비스센터' 내 워룸에 모여 장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CNS

코빗 리서치센터 "토큰증권 발행 성패, 유동성 확보에 달렸다"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

"금융당국 STO 가이드라인 유동성 증대로 이어져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시장 활성화의 성패는 유동성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관련 시리즈 첫 번째 리포트로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 등 STO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리포트는 △한국형 토큰증권의 특징 △토큰증권 유동화 촉진 △토큰증권 글로벌 시장 트렌드 △주요 국가의 제도 현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국내 토큰증권의 3가지 특징으로 조각투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미러링을 꼽았다. 조각투자는 기존에 유동화가 쉽지 않았던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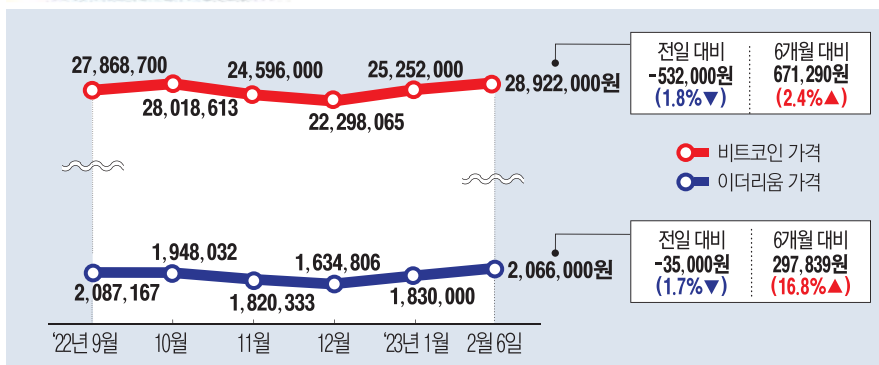
코빗 리서치센터는 해외의 토큰증권 발행 사례가 전통 금융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뮤직카우(음원 저작권), 카사(부동산)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의 시장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분리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의 운영 방식으로서 토큰증권 거래에도 동일한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러링은 전자증권제도 내에서의 기록과 일대일 매칭이 되도록 증권사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의 선두주자인 미국, 싱가포르, 영국의 제도 현황 분석도 덧붙였다. 미국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에는 엄격하지만 토큰 발행에서는 유연한 기조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자국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들에 대해 발행을 자제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절히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토큰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자산들이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체인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이 궁극적으로 토큰증권 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빗썸 지수(2023년 2월 6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68,700	-4,900 (2.8%▼)	이오스	1,370	-21 (1.5%▼)
리플	503	-13 (2.5%▼)	트론	80	-1 (1.2%▼)
솔라나	29,520	-1,170 (3.8%▼)	스텔라루멘	115	-3 (2.5%▼)
에이다	496	-9 (1.8%▼)	비트코인에스브이	55,050	300 (0.5%▲)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삼성·현대·GS…'여의도 시범 재건축' 별들의 전쟁

7월부터 시공사 선정 가능해
DL·포스코·대우·롯데·HDC 등
8개 업체, 아파트 곳곳 홍보물
공사비만 1조3000억원 '군침'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 개요 ※ 출처: 정비업계

위치	면적	규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일원	10만8800㎡	최고 13 → 65층, 1584 → 2500가구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영등포구 '시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수주전 채비에 돌입했다. 여의도 최고령 단지인 시범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면 향후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시범 재건축 사업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수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장 곳곳에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 신청 축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범 아파트 신탁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확정됨에 따라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후 시범은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고려해 주거 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전시·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300%에서 준주거지역 400%로 용적률을 높인다.

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아직 사업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신통기획 적용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사들도 빠르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면 모두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범 재건축 사업의 총 사업비는 '조 단위'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앞서 용산구 한남2구역은 1537가구를 짓는데 7908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됐다. 여기에 가구 수는 한남2구역보다 약 1000가구 더 많은 247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인 만큼 공사비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도시정비 순위를 가를 수 있는 사업비 규모와 '여의도 최고령 아파트' 개발이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면서 많은 건설사가 군침을 삼키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적고, 서울시 신통기획 적용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 건설사들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며 "이와 동시에 최고 65층에 달하는 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게 되면 향후 주요 단지 수주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시범 전용면적 118㎡형은 지난달 19일 20억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래된 20억 원보다 4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현재 이 아파트 동일면적 호가는 최고 25억 원에 달한다.

이동욱 기자 toto@

실거래가 반영 빨라진 '서울형 실거래가지수'

신고 후 15일로 시차 단축

서울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해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치구, 주택 유형·면적·건축 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 유형 △주택면적 △건축 연한 등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내 1000가구 이상 375개 단지의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 가능하다.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동욱 기자 toto@

봉천동 H빌라 검색해보니…"전세보증가입 불가능합니다"

써보니

전세 사기 방지 '안심전세 앱'
보증금 입력해 안심 여부 파악
손실 우려 땐 안전 가격 제안도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앱을 사용해본 결과 임대차 계약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위반·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H 빌라는 물론 인근에 있는 같은 평형의 여러 빌라의 최신 기준 전세 실거래가를 바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타겟이 됐던 신축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했다. 다만 현재 나온 1.0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후 시세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앱을 통해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관한 여부도 파악할 수 있었다. H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3억8000만 원이었다. 이를 입력해서 '자가진단'을 해본 결과 해당 보증금으로 계약 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경매낙찰 예상금액을 바탕으로 "선순위 없이 3억24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드립니다"면서 안전 범위 내 전세 보증금액도 제시했다.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도 파악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유용할 것 같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비스 초기 단계라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인근의 또 다른 전세 매물로 올라온 한 오피스텔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제한적이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회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10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2.09.30일자 기준)

DIGICO KT

시중銀 예금금리 3%대로… 2개월새 잔액 15兆 줄었다

예금 등 돌린 '금리 노마드족'

5대 은행 금리 한 달 새 1%p↓
1월 기준 정기예금 잔액 812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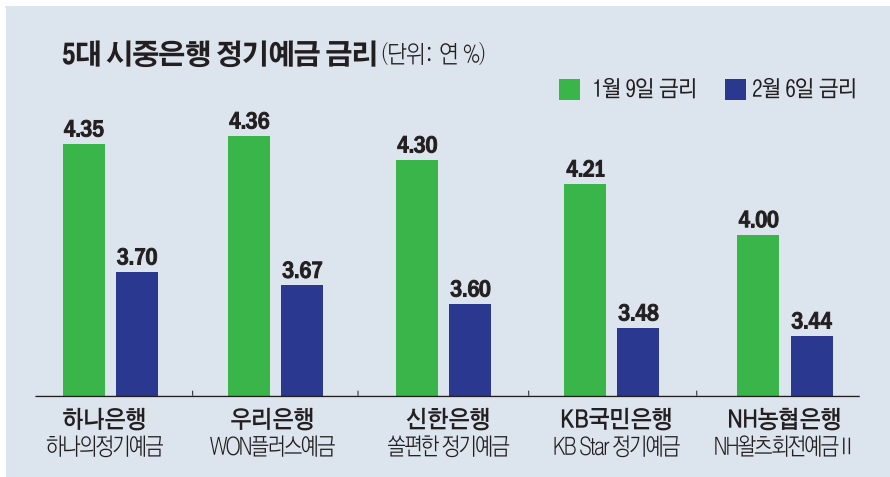
저축銀 평균 年 4%대까지 인하
파킹통장 금리도 줄줄이 하향조정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3%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인상 기조를 이어갔지만 예금금리는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보다 금리메리트가 높은 저축은행 역시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추세다. 이처럼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최근 두 달간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5조원이나 줄어들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연 3.44~3.70%다.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이 연 3.70%로 가장 금리가 높고,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이 연 3.67%,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이 연 3.60%,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연 3.48%, NH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Ⅱ'가 연 3.44% 순이었다. 지난달만 해도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 중반 수준이었으나 한 달 새 1%포인트(p)가량 하락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4일 기준으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4.0%로 조정해 최대 0.6%p 인하했다. 앞서 케이뱅크도 지난달 말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p 내렸다. 12개월 만기 기준 연 4.1% 금리를 제공한다.



※ 출처: 각 사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수신고객을 유치했던 저축은행도 연 4%대까지 떨어졌다. 5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4.49%. 최고 금리를 기록하던 작년 11월 말(연 5.53%)과 비교하면 1.04%p 내려간 수준이다.

한때 연 6%를 웃돌던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대아저축은행으로 연 5.00%다. 신한·KB·우리금융·OK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90%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통상 저축은행들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0.8~1.0%p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 금리차가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금융권은 최근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린 파킹통장 금리도 재조정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OK웃백만통장Ⅱ'의 최고 금리는 이달 1일 연 5.5%에서 5.0%로 0.5%p 내렸다.

애큐온저축은행의 '머니쪼개기 통장' 금리도 연 4.3%에서 4.1%로 0.2%p 하락했다.

이처럼 예금 금리가 하락하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감소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2조2500억 원이다. 이는 정기예금 잔액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11월 말(827조2986억 원)보다 15조 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피싱·쇼핑몰 사기 대비하세요"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형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이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다양한 온라인상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던 사이버보험을 개인이 가입해 사이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입할 때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가입한다고 선택하면 피보험자로 포함돼 계약자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대상이다.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장을 비롯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을 담보별로 각 2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장 담보는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피싱 또는 해킹,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이 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기피해는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담보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란 인터넷 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을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온라인 사기로 경찰 신고 후 금전상의 사기피해를 확정받은 뒤 보상해 준다.

이 상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위험도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감독원장〉

'영업맨' 자처한 이복현… 韓금융사 해외판로 뚫는다

내달 런던서 기업설명회 개최
수석부원장 대신 직접 현장行
尹정부 기조·업계 요청 화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런던에서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금감원의 해외IR은 통상 수석부원장급이 참석하던 행사로, 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혼자 싸우도록 할 수 없다"며 영업사원이 돼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발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지난달 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내달 런던에서 IR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당국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업계 요청이 있었고, 안그래도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내수포화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제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감독제도를 설명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관련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적극적인 행보에 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원장이 직접 해외투자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중심지 런던에 직접 방문해 IR을 진행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수석부원장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원장이 직접 참여해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해외IR은 수석부원장급이 참여하는 행사"라며 "원장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적극적으로 맞췄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순방과 관련,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방기간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기간 만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애로 사항도 대통령에게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좀 많이 경청해달라"고 했다.

서지연 기자 sjy@

교보생명 "형사재판 2심 무죄 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1차 국제중재 무죄추정 원칙 적용
신창재 회장 풋매수 의무 없어"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 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중재판정부가 당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전제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또는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어피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어피니티는 2차 중재에서도 1차 때와 같이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을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다퉈지는 쟁점은 동일한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라며 "마치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니 2차 중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중재판정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한용구 신한은행장, 취임 한 달 만에 사임… "건강상 이유"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한용구〈사진〉 신임 신한은행장이 건강상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사임한다.

신한은행은 한 행장이 지난주 건강상의 사유로 은행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6일 전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한 행장은 "치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흔들림 없는 영업전략 추진을 위해 빠르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 행장은 진옥동 행장(회장 내정자) 체제에서 2년 간 영업그룹 부행장으로 신한은행이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취임 이틀 만에 모바일 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고객중심' 경영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에 발목이 잡혀 조기퇴진하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조만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어 후임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新외환법' 증권사 외환업무 숨통…해외투자 편해진다

해외투자 규모 20년간 10배 쑥
비은행 금융기관 중요해졌지만
기타외국환업무기관 분류 발목
외환업무 확대 국제금융 역량↑
투자자 권익·효용 개선 기대감

기재부 기본방향 살펴보니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외환법'이 24년 만에 제정된다. 신외환법을 계기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라는 낡은 원칙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 중심의 외환 업무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은 되는데"… 증권사 발목 잡는 낡은 규제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의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0년대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순채권국으로 거듭났음에도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외화 유출 억제'라는 낡은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높은 대외 의존도,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현실과 제도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조829억 달러로, 2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는 4.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모든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경우 현행법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제약이 많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화 신용공여의 길을 텄지만 은행과 비교하면 업권 간 불평등은 여전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외화증권 위탁매매 규모는 2012년 4조 원에서 2021년 528조 원까지 급증했다. 수수료수익도 9000억 원에 달한다. 통화파생상품 거래 규모 역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의 외화 업무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은행중심주의에 입각한 외국환거래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할 때,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없는 증권사는 은행에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수탁 업무도 맡기 어렵다.

외화 조달 여건도 만만치 않다. 외국환은행의 외화 대출 창구는 한국은행의 용도 제한 지침에 따라 해외 실수요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대형 증권사 일부만 발행에 나선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결국 외화를 조달하려면 현물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거나 외환스왑(FX swap), 통화스왑(CRS)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조달 규모가 제한적이고, 스왑레이트가 하락하면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는 증권사들의 낮은 외환 경쟁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금융소비자 권익까지 확대될까 =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도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에서 규정한 증권사의 외환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투자자들의 불편도 크다"고 전했다.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는 외국환 업무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며 "외국환 업무 취급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비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약하는 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신외환법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외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금융투자자의 편익을 높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기대응 역량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외환 및 국제금융 업무 역량을 제고시키고 대외 건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금융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융투자 거래의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 절감이 발생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과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업무 범위 확대 전제조건은 금융사들이 내부적인 관리·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외환 부문 모니터링 체계 △환 위험 관리 방안 △적정 외화 유동성 확보 △외환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당국 역시 신외환법을 제정하면서 비은행 금융사들의 위험 관리 역량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IPO명가' 재건 노리는 NH證 "오아시스에 총력"

지난해 주관총액 10분의 1토막
시총 1兆 규모 IPO시장 가늠자
7~8일 수요예측·내주 일반청약

조 단위 몸값을 자랑하는 오아시스가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IPO 명가' 재건이라는 NH투자증권(대표 주관사)의 꿈도 여기에 달렸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대표 주관사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두고 7~8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14~15일엔 일반청약을 각각 진행한다.

총 공모 규모는 1597억~2068억 원이며, 공모 희망가 범위는 주당 3만500~3만950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9679억~1조2535억 원이다.

시장에선 오아시스가 올 한해 IPO 향방을 가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장연기가 계속되다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새내기 상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총이 1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오아시스에도 이같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이번 IPO 대표 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에도 이번 오아시스 흥행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증권시장의 어려움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IPO 시장의 명가'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 든 셈이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매출 12조6565억 원, 영업이익 5213억 원을 기록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가량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NH투자증권은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 수익 감소와 운용 및 관련 이자수지 축소, 증권여신 및 예탁금 관련 이자수지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했지만, 대형 회사들의 IPO 철회 여파도 실적 악화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NH투자증권의 IPO 주관총액은 2022년 4394억 원으로, 2021년(3조6972억 원)에 10분의 1 수준이다. 2022년 하반기 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NH투자증권에 걸맞은 성적표는 아니었다. 지난해 상장을 추진한 대어로는 원스토어, SK쉴더스, 현대오일뱅크, 컬리, 케이뱅크 등이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오아시스의 흥행 성공 여부는 IPO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며 "중소형주에 이어 오아시스까지 흥행에 성공한다면 상장을 미루거나 적정 시점을 보고 있던 대형주들이 향후 상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갈길 먼 '깜깜이 배당' 개선안

상장협 3일 배당개선 설명회
기업들 "내달 정관 변경 무리
실제 적용 뒤 영향 따져봐야"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자 마련된 배당절차 개선안이 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지난 3일 배당을 시행하는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배당절차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제도가 개편키로 했다.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을 하려면 다음 달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상법(제363조)에 따르면 주총을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주총 한 달여전에 전자공시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주 중에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변경안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건을 정리하고 경영진 최종 승인까지 받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지난해 열린 제53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모습. 이투데이 DB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했을 때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서 기업들도 정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정관은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문열린 토큰증권 시장… 신한證 'STO 얼라이언스' 출범

협의체 구성해 생태계 개척
대신·KB證 플랫폼 준비 중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의 서비스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협업하는 STO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생태계 개척에 앞장설 방침이다.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 증권 발행과 거래를 위한 표준과 사례 설정 등을 목표로 한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 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토큰 증권의 유통 솔루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연동 지원, 국내외 회원사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도 예정돼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비즈니스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권에 관계없이 도전을 함께할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플랫폼 관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

KB증권은 작년 11월 토큰증권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주요 기능 테스트를 마쳤다.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도 올해 내 STO 플랫폼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AI가 美ETF 리서치하는 한투證 'AIR ETF'

한국투자증권은 인공지능 기반 리서치 서비스 'AIR(AI Research) ETF'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AIR ETF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124개 종목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공한다. 분석 대상 종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보고서는 ETF에 관한 설명은 물론 최근 수익률과 펀더멘털, 피어그룹 분석 등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 다양한 데이터를 담았다. 또 텍스트 마이닝 기법 등 자체적인 분석 모델을 통해 주요 이슈와 연관된 ETF도 자동으로 찾아 제시해 준다.

AIR는 매일 쏟아지는 3만여 건의 뉴스 콘텐츠 중 경제 뉴스, 국내외 종목, ETF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량 주식은 물론 중소형 주식까지 폭넓게 커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시장 커지자 독해졌다… GS25 vs CU '위스키 신경전'

김창수 위스키·배럴 확보 싸움
사인회·럭키 드로우 등 이벤트
CU, 글렌그란트 배럴 사들여
위스키 활용 캔 하이볼까지 공세

주류를 둘러싼 편의점 업계 '빅2'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격전지는 위스키다. 곰표맥주, 원소주 등 맥주, 프리미엄 소주에 이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시장이 성장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PB 맥주, 소주를 둘러싼 GS25와 편의점 CU간 대리전이 위스키로 확전하고 있다. '오픈런'을 부르는 위스키 판로 독점을 위한 공세와 수세를 업계가 번갈아가면서 한판씩 치고받는 모양새다. GS리테일의 경우 전국에 퍼진 1만5000여 개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GS더프레시, 와인25플러스 스마트오더와 함께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앞세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창수 위스키' 파트에서 GS리테일이 선공에 나섰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토종 위스키는 단 두 군데로, 쓰리소사이어티 '기원'과 김창수 위스키다. 이번 김창수 위스키는 전국에서 단 276병만 생산될 만큼 희소성이 있어 젊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오픈런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GS리테일은 이 중 28병 매입에 성공하며, 김창수 대표의 독점 사인회는 물론 전용잔 기획 세트까지 내놨다.

CU 역시 12병의 김창수 위스키를 추가로 확보하며 GS리테일을 바짝 추격한다. GS리테일 절반 수준의 위스키를 확보한 만큼 편의점 유통망에 직접 푸는 대신 추첨을 통해 위스키 구매권을 부여하는 '럭키 드로우'를 택했다. 지난 2019년 곰표맥주 이후 이렇다 할 주류 히트작이 없는 CU는 최근 주류TF를 가동시키며 경쟁력 강화에 주력 중이다.

양사 신경전은 위스키 프리미엄 배럴 확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와일드터키사가 아시아에 배정한 '유니콘 배럴' 총 25통 중 GS리테일, BGF리테일이 각 1통씩 확보했다. 특히 GS리테일은 유튜버 와인학개론, 주락이월드가 확보한 배럴까지 스마트오더 서비스로 판로를 제공해주며 사실상 '판전승'을 거뒀다. 최근에는 BGF리테일이 글렌그란트 배럴 1통을 확보하며 내달 한정판 위스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위스키 인기 상승은 홈술 트렌드뿐만 아니라 하이볼 문화 때문으로 본다. 실제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위스키는 20~30만 원대, 혹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백 만 원대의 고가 위스키라기보다는 2~3만 원 대 저가 위스키들이 대부분이다. 니트 잔으로 위스키만 마시는 것보단 토닉워터 등과 함께 저렴한 위스키를 타 먹는 믹솔로지(술과 음료 혼합)가 유행인 이유다.

이 때문에 캔 하이볼로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 캔 하이볼은 위스키 원액보다 저렴한 오크칩을 활용해 위스키 하이볼 맛을 낸 RTD 제품이다. CU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어프어프(EARP EARP)'와 협업한 제품을 출시했고, 이어 GS25도 일식 레스토랑 쿠시마사의 지식재산권(IP) 사용 계약을 채결해 '쿠시마사 하이볼'을 선보였다.

한동안 침체 국면이던 위스키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 탄탄한 유통망으로 무장한 편의점까지 본격 가세하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위스키 원년이 될 것이다. 모든 업계가 앞다퉈 위스키 종목에 신경 쓰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편의점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와인 시장이 지난 몇 년간 큰 반전을 이룬 것처럼 위스키 시장도 커다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지 기자 heyji@



롯데제과 '망그러진 곰X드림카카오' 롯데제과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망그러진 곰'의 한정판 캐릭터가 담긴 '망그러진 곰X드림카카오' 제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망그러진 곰X드림카카오'는 드림카카오 72%(86g) 4통과 롯데제과 단독으로 제작한 망그러진 곰 빅데코 스티커로 구성됐다. 망그러진 곰은 삐뚤빼뚤한 선 때문에 다른 곰들에게 놀림 받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대로 괜찮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캐릭터다. 사진제공 롯데제과

엔데믹에 배달주문 '주춤'
외식업계 할인카드 꺼냈다

작년 4분기 거래액 6.7%↓
도미노피자 '2월 2배 드림'
BBQ, 4000원 할인 이벤트

엔데믹에 외출과 회식이 느는데다, 가격 인상에 배달비까지 치솟으며 배달 주문 서비스가 주춤하자 외식업계가 할인카드를 속속 꺼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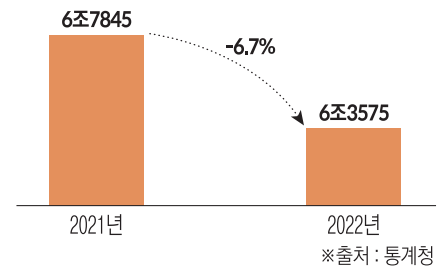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음식서비스는 2018년 5조2731억 원에서 이듬해 9조7328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7조3828억 원으로 2년 만에 3.3배 증가했다. 2021년에도 25조6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4% 늘었지만, 본격적으로 엔데믹에 접어든 지난해 26조339억 원으로 1.4%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배달서비스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4분기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3575억 원으로 2021년 4분기에 비해 6.7% 뒷걸음질쳤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실외 노마스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외출과 모임이 늘면서 배달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 또 연이은 가격 인상에 배달료까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매장 방문 고객이 크게 늘었다"면서 "배달비가 비싸진 이유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할인 카드를 속속 꺼내들고 배달 수요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이달 10일까지 피자 1판 주문 시 1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2월 2배 드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피자헛은 28일까지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프리미엄 피자 3종을 최대 50% 특별 할인가에 만날 수 있는 '타임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BQ는 지난달 계묘년 맞이 인기 기프티콘 2000원 할인에 이어 이달 12일까지 황금올리브 치킨와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 치킨 등 '기프티콘 BBQ 베스트 치킨 5종' 4000원 할인 프로모션으로 또 한번 할인에 나선다. 교촌치킨은 12일까지 12시~16시 사이 주문 고객에게 펩시콜라 1.25L를 무료로 제공하는 '치콜 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시작한 '골드타임 싹3 이벤트'의 두 번째 이벤트다. 공차코리아가 2월 한 달간 '배달의민족'에서는 1만 원 이상 포장 주문 시 1000원을 할인하고, '쿠팡이츠'에서는 1만1000원 이상 포장 주문 시 1000원을 싸게 판매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온라인쇼핑 음식서비스 거래액
(단위 : 억원) ※ 4분기 기준



※출처 : 통계청

부메랑 된 가격 인상… 소비심리 위축에 식품산업경기 악화

작년 4분기 식품산업 경기 지수
87.4로 전 분기 대비 7.3p 하락
빵·과자 인상… 주류 합류 예정
올해 1분기 전망치도 흐림

식품업계의 연이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식품산업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87.4로 전 분기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분기별 음식료품 제조업체 표본집단 설문을 통해 추출되는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 의미다.

지난해 상승세였던 해당 지수는 최근 주요 식품기업의 제품값 인상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지수는 지난해 1분기 83.9에서 2분기 89.8, 3분기 94.7로 상승세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제품 출고가 인상에 매출이 상승하면서 작년 2~3분기 경기지수와 영업이익 지수 상승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지수는 작년 1분기 87.4에서 2분기 98.4, 3분기 101.9로 올랐다.

제품 출고가와 연계되는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2019년까지 0.7%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2021년 1분기 1.6% 증가한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3분기에는 10.1%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유지가 33%, 제분 30%, 사료 20%, 제당 및 전분 16.9%, 면류 13.1%로 수입 곡물 가공품과 재가공품의 상승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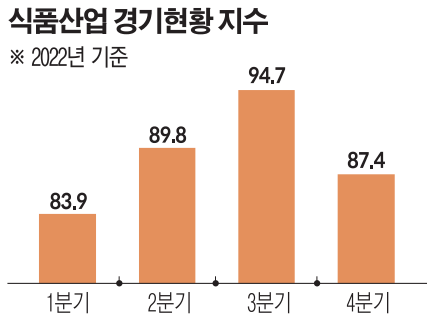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지수는 87.4로 하락했다. 생산과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등 대부분의 경기지수가 하락하며 주춤한 모양새다. 생산규모는 작년 3분기 99.8에서 96.4로 3.4% 내렸고, 매출도 100.3에서 96.6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93.0에서 86.5로 6.5포인트 미끄러졌다. 자금사정은 91.5에서 89.8로 내려섰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증가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해 1월 104에서 12월 90까지 하락했다.

연초부터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불경기에 소비 위축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연초 LG생활건강과 롯데칠성음료가 콜라 값을 올렸고, 삼다수도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했다. 빙그레와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은 아이스크림과 값을 올렸다. 파리바게뜨와 롯데리아, 써브웨이 등도 가격 인상에 나서며 다른 업체들이 뒤따르는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 올 상반기에는 맥주 등에 부과되는 세금도 오르며 주류 기업들도 가격 인상에 합류할 전망이다.

향후 상황도 흐리다. 올해 1분기 식품업계는 경기지수 전망치를 91.1로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올 1분기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업종은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124.2)와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00.4),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105.6)이었다. 반면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은 79.5,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81.8),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84.7),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85.3) 등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식품산업 경기현황 지수
※ 2022년 기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상 '2022 앤어워드' 3관왕 달성

대상이 '2022 앤어워드(2022 Awards for New Digital Award)'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인 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디지털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이번 '2022 앤어워드'에서 대상 청정원과 미원 브랜드 홈페이지는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 각 그랑프리(Grand Prix),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또한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간장'의 광고 캠페인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가장 기~~인 간장 이야기'가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분야에서 그랑프리(Grand Prix)를 수상해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광고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가장 기~~인 간장 이야기'. 사진제공 대상

대상 관계자는 "대상 브랜드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2022 앤어워드' 3관왕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각 브랜드만의 고유한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공수처 "손준성, 정언유착" 주장… 孫 "증거능력 없다" 반박

'선거법 위반 혐의' 7차 공판
"검언유착 감찰 피하려 고발사주" 공수처 공소사실 변경 취지 밝혀
공소장일본주의 언급한 변호인 "법적증거 없이 예단·편견 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의 혐의사실과 배경, 경위를 설명하며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가 임박하며 감찰조사,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손 검사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익명 제보자에 대한 각종 수사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담긴 내용, 이 인물이 A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기사 등이 담긴 자료 사진 88장이었다. 손 검사는 이렇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에게 '1차 고발장'에 첨부할 제보자 관련 실명 판결문 수집을 지시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기간 시작 다음날인 4월 3일 오전 6시 59분부터 7시 18분까지,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SNS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이 '1차 고발장'과 여기에 첨부할 88장의 자료들이다. 이렇게 자료를 건네받은 김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제보자에 대한 정보, 손 검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를 텔레그램에서 조 씨에게 전달했다.

공수처 측 검사는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손 검사 자신도 감찰 또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이에 검언유착과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 즉, 제보자가 범여권 인사들과 뉴스타파, MBC와 결탁했다는 1차 고발장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그 외의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사건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 없는 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공수처 측 주장 가운데 '검찰의 고위관계자 등 비발생 여부', '제보자의 배후세력으로 파악된',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등 표현을 거론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고 사실이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법적 견해나 사실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평가의견은 불필요한 기재는 예단과 편견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法 "한국콜마, '구내식당 적자' 배상 타당"

계약 시 손실 발생땐 지원금 약속
위탁업체 후니드 영업손실 났지만 콜마 측 "지원 의무 한정적" 주장
법원 "계약 불이행 5900만원 배상"

한국콜마가 자사 공장과 관계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 손실 59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구내식당 위탁업을 운영하는 후니드가 한국콜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후니드는 2020년 6월 3일 한국콜마의 공장 구내식당 두 곳에 관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한국콜마의 관계사인 C사와 D사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구내식당 오픈 후 후니드에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을 상호 협의해 산정·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원금의 기준은 후니드의 손익분기점 수준을 고려해 정하고, 후니드는 적자 발생 근거 자료를 한국콜마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적자가 발생한 후니드는 이 같은 사정을 알렸으나 한국콜마는 손실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후니드는 한국콜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니드 측은 "한국콜마는 공장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C·D사 구내식당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했고, 한국콜마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콜마 측은 "이 사건 계약상 지원금 지급은 피고의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니다. 설령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에게는 지원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콜마와 C·D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며 "피고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따른 영업 손실 범위 내로 금액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콜마에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경 판사는 "한국콜마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5항에 따라 후니드가 피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석주 기자 ssp@



또 지워진 가격표…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외식비가 급등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외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외식 주요 8개 메뉴 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의 한 거리에 음식 메뉴판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문제없다"

수원지검, 준항고 냈으나 기각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며 저항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의견도 냈다.

수사팀은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당시 "허위 영장 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말은 제주도, 의사는 서울로?
자퇴 의대생 74% 지방대 출신

최근 3년 동안 학교를 그만둔 의대생 4명 중 3명은 지방 소재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도 양극화되면서 수도권 대입에 재도전하는 '반수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종로학원이 전국 38개 의과대학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년) 의대 지역별 중도 탈락자는 총 561명이었는데 이 중 비수도권(지방권)이 74.2%(416명)로 나타났다. 서울권은 20.7%(116명), 수도권은 5.2%(29명)였다. 중도 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도 탈락자가 많았던 대학으로는 전남대(35명), 조선대·한양대(각 32명), 원광대(2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28명) 순이었다.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비수도권이었다.

반면 연세대(1명), 성균관대(1명), 가톨릭대(5명) 의대는 사실상 중도 탈락자가 거의 없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 3년 동안 7명이 중도탈락했으나, 6명이 본과 학생으로 '부적응'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지방 의대 중도 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최근 계속 확대돼 오다가 2023학년도 대입부터 40%로 의무화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실상 지역인재 40% 의무선발이 대학 입학 후 양극화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의 흐름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의 의학계열 재도전, 지방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 치대·한의대·수의대에서 의대로 재도전하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출범 1주년 '서울투자청' 홍콩금융·오일머니 공략

2030년까지 서울에 연 30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목표로 설립된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올해 홍콩 금융기업과 중동 오일머니 자본 유치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출범 1년을 맞은 '서울투자청'이 올해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소재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금융기관 테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울의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로드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도시와 연계한 파트너십 강화에도 집중한다. 핀테크, 바이오,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서울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런던·보스턴 등 산업별 클러스터와 연계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



서울투자청은 작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가, '서울관'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제공 서울시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서울의 게임·콘텐츠 산업 등에 관심이 높은 중동 투자자가 원하는 혁신기업, 유망기업에 대한 맞춤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투자청은 지난해 전년(1123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613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자회사 '아이라인 스튜디오'의 특수효과 영상 스튜디오를 서울에 유치했다. 앞으로 5년간 1억 달러 외국인 투자와 최소 200명의 신규 인력 채용이 예상된다. 박은평 기자 pepe@


신혼부부
지훈♡유진씨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LH
사회초년생 민준씨가
월세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빈씨 가족이
이사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LH가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내 희망과 삶을 잇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LH

“애도되지 않는 죽음, 더 비참하게 반복”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

2017년 콜센터 실습생 비극 실화 소재로 무거운 질문
‘도희야’ 이어 배두나와 협업
장편 연출작 2편 모두 칸 초청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2017년 한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던 청소년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신 대기업 하청 콜센터에서 고객의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도맡았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찾아온 비극이다. 8일 개봉하는 ‘다음 소희’는 6년 전의 실화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영화계의 관심을 받았다.

6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정주리 〈사진〉 감독을 만나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장시간의 침묵을 지키며 답을 신중하게 고르던 정 감독은 “그 죽음 하나가 아니라, 그전에도 후에도 비슷한 죽음이 더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고 짚었다. 그로 인한 좌절감이 작업의 동력이 됐다고 했다.

‘다음 소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전반부가 특성화고 실습생 소희(김시은)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실제 사건에 입각해 구현했다면, 후반부는 그 죽음에 지분이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책임을 묻는 형사 유진(배두나)의 우직함을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다음 소희’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는 형사 유진 역을 연기한 배두나의 공도 컸다고 한다. 배두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소재로 했던 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 ‘도희야’(2014)에서도 주요 역을 맡아 출연하면서 정 감독과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정 감독은 “독일에서 워쇼스키 남매의 영화를 한참 찍고 있던 배두나가 ‘다음 소희’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답을 줬다”면서 “나중에 만나 어떻게 단박에 선택할 수 있었냐고 물으니 ‘이 영화는 세상에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더라. 어떤 식으로든 그걸 돕고 싶다고 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 감독은 ‘도희야’에 이어 ‘다음 소희’로 연이어 칸영화제에 초청됐다. 장편 연출작 두 편이 모두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의 부름을 받은 셈이다. 정 감독은 다만 ‘다음 소희’ 출품 당시에는 후반 작업을 다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극 중 눈이 오는 장면은 전부 CG인데 (영상 하단에) ‘괄호 열고 눈 CG’라고 써서 보냈을 정도”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럼에도 공식 초청작 목록에 이름을 올린 건 “이 작품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 친구들이 자기 삶에서 느끼는 압박, 본인의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 (심사위원들이) 이입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영화라는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대입해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드는 작품마다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정 감독이지만, 두 번째 작품인 ‘다음 소희’를 선보이기까지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대중과 소통할 만한 작품을 내놓지 않은 그는 “영화는 자본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도희야’를 끝내고 나서 꼭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막상 투자사를 찾아 나서고 제작 의사를 타진해 보니 다들 환영하지 않더라. 그렇게 6년이 훌쩍 가 버렸다”고 돌이켰다.

‘다음 소희’는 2022년 1월 촬영을 시작해 2월 말에 마쳤다. 정 감독은 “그 사이 이미 있는 시나리오를 조금 각색해 연출해 보자는 제의도 받았지만, 끝내 도장 못 찍은 이유는 결국 하나”라면서 “내가 가장 온전하게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감독은 “‘다음 소희’가 다른 영화에 견주어 봤을 때 관객을 사로잡을 만한 스펙터클이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걸 안다”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두 시간 남짓 깜깜한 극장에 함께 앉아 비록 지금은 죽었지만, 구체적으로 살아있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꽃 기자 pgot@

사진제공 트윈플러스파트너스



3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 8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편집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피니언면 비롯 브랜드 통일성 필요”

외부필진 강화·차별화된 기획기사 통한 진단과 전망 주문

본지 편집위원회 올해 첫 회의

2월 본지 편집위원회의 주제는 경쟁 매체와의 ‘차별성’이었다. 독자의 시각으로 기획기사·사설 등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편집위원회 회의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호연 편집위원회 위원장(한국교육방송 이사), 김선호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김성홍 조폐공사 홍보실장,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정일환 정치경제부장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기획 기사를 통한 경쟁 매체와의 차별화 △영향력 있는 외부필진 선임 △오피니언 면을 비롯한 지면 브랜드 통일성 구축 등의 제안이 있었다.

김선호 위원은 “다른 언론사에서 하지 않는 기획을 1년에 몇 개라도 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투데이가 이러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젠다를 던져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성홍 위원은 “이투데이만의 차별화된 기획기사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 언론에서 계속 화두가 되는 주제를 차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시장에 울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 이대남(이십대 남성) 등 다양한 주제들이 추천됐다.

외부 필진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김선호 위원은 “차별성 측면에서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필진을 잘 모셔서 글을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오피니언 면을 비롯한 브랜드 통일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호연 위원장은 “외부 칼럼이 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다”며 “외교, 남북관계, 노동, 정치 등 분야별로 정체성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국 위원은 “진단과 전망을 정확히 해서 파고들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기사에서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던져줄 수 있다면, 그 결론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덕헌 대표이사는 “하나둘씩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담아듣겠다”며 “빠르게 변화할 수는 없더라도 항상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그래미’ 높은 벽…BTS, 3년 연속 수상 불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제65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세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6일(한국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는 제65회 그래미 어워즈가 개최됐다. 이날 BTS는 밴드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앨솔러지 앨범 ‘옛 투 컴(Yet To Come)’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각각 올랐다.

특히 BTS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3년 연속 후보로 오르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해당 부문 트로피는 영국 팝스타 샘 스미스가 독일 팝스타 킴 페트라스와 함께 작업한 ‘언홀리(Unholy)’에 돌아갔다. 본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베스트 뮤직비디오’ 시상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수록된 콜드플레이의 9집 앨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도 그래미 4대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Album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오르며 기대를 모았다. 이 부문에서는 피처링 참여 아티스트, 송 라이터, 엔지니어 등을 모두 수상자로 기록한다. 콜드플레이가 해당 부문에서 수상할 경우, 송 라이터로 참여한 BTS 멤버 RM, 슈가, 제이홉도 수상자로 등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앨범’ 트로피는 팝스타 해리 스타일즈의 ‘해리스 하우스(Harry’s house)’에 돌아가며, BTS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장유진 기자 yxxj@

이희범 前장관, 부영그룹 회장 취임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영그룹은 4년 8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명호 회장을 대신해 이희범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2회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STX 중공업 회장, LG상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임명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전 주택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유 부시장은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도시계획연구부에서 일한 뒤 2006~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주택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 서울시 기술 분야 전문 행정가다. 박은평 기자 pepe@

처음으로 얼굴 드러낸 조국 前장관 딸 조민 씨

“난 떳떳하다, 숨지 않고 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사진〉 씨가 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오전 방송된 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조 씨는 과거 김 씨가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지만,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이후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해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다”고 했다.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조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글/장유진 기자 yxxj@·사진제공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임용 △국민소통실장 박용철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김철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장 정용호

◆**환경부**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서영태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이경빈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조현수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관리과장 서해엽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문종진 △금강홍수통제소장 조효섭 ◇과장급 신규 보임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현성호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종합교통정책관 구헌상 △물류정책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 박건수

◆**통계청** ◇과장급 △통계등록부과장 황호숙 △기업통계팀장 정희상 △농어업동향과장 김상진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황의태 △〃 사회조사과장 이무영 △〃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송요성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동훈

◆**한국수력원자력** ◇상임이사 임명 △발전본부장(기술부사장 겸직) 이상민 △수출사업본부장 박인식 ◇보직 이동 △발전사업본부장 장희승 △건설사업본부장 최일경 △품질보증처장 이경수 △원전건설처장 홍승오

◆**한국전력기술** ◇선임 △상임감사 윤상일

◆**유진투자증권** △전략금융실장 이승민 △서울WM센터장 홍윤선 △분당WM센터장 김종기 △인재개발팀장 강정민 △채널영업추진팀장 이호선 △채널운영팀장 서상진 △파생솔루션1팀장 임명환 △IB사업추진팀장 김성훈 △전략금융팀장 안태갑

◆**메디톡스** ◇임원 승진 △전무 글로벌사업부 유광준 △상무 의학본부 이우선 △이사 필러생산실 이재철

부음

▲**김일남** 씨 별세, **한상복**(한라학원 원장)·**상옥**·**상미**(지정중학교 교사)·**상희**(화성시 공무원)·**상온** 씨 모친상, **김인영**(회사원)·**곽노현**(강원도청 공무원)·**김운기**(삼성전자 수석)·**원윤식**(네이버 대외커뮤니케이션 전무) 씨 장모상 = 6일, 강원 원주 세인트 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033-733-4444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김 준 일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지역재투자평가제도가 바로 미국의 CRA를 모델로 만든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낙후된 지역 혹은 계층에 성공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CDFI는 미국의 재무부가 펀드를 조성, 이를 지역의 인증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전통적인 대출기관보다 좀 더 유연한 대출을 낙후 지역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또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균형발전은 선거에서 중요한 캠페인이자 당선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였던 것은 우리가 그것에 지독하게 무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책실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 사장은 일본의 중핵 도시 구축을 언급하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역 대학과 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학과 산업 그리고 금융이 서로 호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비로소 지역은 살아나고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금융은 집중과 대형화, 그리고 효율화와 혁신의 역사였다. 금융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규모수익 체증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야였다. 일찍이 영국이 그랬고 지금의 미국 금융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미국의 화려한 금융의 역사는 2009년 금융위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다.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지역재투자법)와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지역개발금융) 등 지역의 금융발전과 금융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CRA는 지역 커뮤니티의 신용 요구에 대한 충족을 돕기 위해,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지역 내 재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1977년 제정되었으며 지역신용제공에 대해 주 회원은행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한다. 한국의 지역재투자평가제도가 바로 미국의 CRA를 모델로 만든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낙후된 지역 혹은 계층에 성공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CDFI는 미국의 재무부가 펀드를 조성, 이를 지역의 인증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전통적인 대출기관보다 좀 더 유연한 대출을 낙후 지역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노스다코타은행과 같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역공공은행의 성공사례도 있다.

시야를 유럽으로 돌려보면,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금융의 모습을 그려보면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독일의 GLS나 움벨트 은행과 같은 지역의 자발적 요구와 이해를 성공적으로 담고 있는 사회적 은행들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금융중개기관이 특정 고객(기업)과 장기관계를 통해서 그 고객의 정보를 얻고 또 그를 통해 더 밀접한 금융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금융기법인 관계형 금융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대응 등을 금융산업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물론 해외의 이런 사례들이나 관계형 금융 등이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의 금융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좀 더 전향적인 시도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충청은행 설립 노력은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은행의 설립은 지역 내 금융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수요 측면에서의 연관관계를 통해 여타 산업의 생산 및 고용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 설립자본금 5000억 원을 가정했을 때 1944억 원의 부가가치와 1166명의 고용이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는 지역은행을 신설할 경우 은행 간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밀착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한 금융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관계형 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단순히 중앙에서 신용을 할당하여 발생하는 신용 과잉공급 논란이나 중앙의 정책금융을 따내기 위한 지대추구행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역에 은행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신용공급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충청은행이 조만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며 새로 설립되는 은행이 진정한 지역밀착 관계형 금융의 모범사례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토크

챗GPT, 생성형 AI가 가져올 서비스 혁명



이 명 호
미래학회 부회장
태재연구재단 전문위원

알파고 이후의 충격이다. 2016년 봄에 알파고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벤트로 자신의 능력을 알렸다면 챗GPT(ChatGPT)는 조용히 사람들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다. 알파고 이후 사람들은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바둑 실력을 보인 인공지능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번역을 해주고, 이미지(얼굴)를 식별하고, 사기를 방지하고, 성향에 맞춘 콘텐츠 추천(큐레이션) 등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은 뒷단, 곧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용자들은 직접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 현실에서 접하는 쓸모 있는 인공지능이 없다 보니 또다시 인공지능의 겨울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때 챗GPT가 등장한 것이다.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는 작년 겨울에 조용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확보하고,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했다.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반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챗GPT의 경이적인 확산 속도를 알 수 있다.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보고서 작성, 코딩 등의 실력을 갖추어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이 등장했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 2016년 MS의 챗봇 테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훈련(세뇌)시키자 차별적 발언, 막말을 하면서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루다가 동일한 실수를 해서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챗GPT가 공개되기 한 달 전쯤에 메타(페이스북)가 공개한 비슷한 인공지능인 갤럭티카(Galactica)는 2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4800만 개의 학술 논문으로 훈련되어 학술 문헌을 요약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기사와 과학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그럴듯한 가짜 연구 보고서를 내놓는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서비스를 잠시 중단해야 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해 챗GPT가 기록적인 이용자 수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챗GPT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실수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고,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등 여러 실수를 드러냈지만, 빠르게 실수가 수정되고 개략적으로 잘 정리된 보고서를 작성해준다는 점에서 쓸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나온다. 학생들이 챗GPT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산기와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받아들여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챗GPT가 현실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챗GPT는 의사, MBA 등의 시험을 통과하여 여러 전문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3년째 투자와 연구 협력을 하는 MS는 챗GPT의 성공에 고무되어 추가로 무려 100억 달러(12조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MS가 전체 직원의 5%에 달하는 1만 명을 해고할 것이라는 방침에 이은 발표라는 점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챗GPT의 기능이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에 접목되면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미 MS는 일부 분야에서 코드 작성의 4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오피스의 도입이 사무직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제2의 오피스 혁명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더 큰 기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법률, 행정, 세무 등의 상담을 챗GPT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근거한 서비스들이 오히려 쉽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챗GPT가 보여주었다. 정부가 앞서서 법률, 행정, 세무 등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프레트 아들러 명언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낸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그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보편적인 열등감·무력감과 이를 보상받거나 극복하려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 욕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위대해졌고, 색약(色弱)은 간혹 대(大)화가를 만들어 낸다는 '열등콤플렉스'라는 용어를 고안해 내기도 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70~1937.

☆ 고사성어 / 외유내강(外柔內剛)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마음속은 꿋꿋하고 굳세다는 말이다. 당서(唐書) 노탄전(盧坦傳)에 나온 고사에서 유래했다. 황제가 절도사(節度使) 이복(李復)의 후임으로 요남중(姚南仲)을 임명하자 군대 감독관인 설영진(薛盈珍)은 요남중이 서생(書生)이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노탄은 '요남중은 외유중강(外柔中剛)이고, 설영진이 요남중의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설영진을 비판했다. 노탄의 말에 나오는 외유중강의 '중강'이라는 말은 '내강'과 같은 뜻이다.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 (Lewisian turningpoi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갈돼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해 이 명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에 루이스 전환점을 맞았다.

☆ 속담 / 밤이 깊어 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오랫동안 참고 이겨 내면 마침내 새롭고 희망찬 환경이 다가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정치판 요동치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



권 태 성 / 자본시장부

"'대통령실과 갈등 안철수, 공개 일정 전격 취소', 이렇게 되면 김기현 테마는 호재다." 종목 토론방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테마주로 엮인 방에서 언급된 글이다. 이 회사는 사내감사가 김 의원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여 올해 들어서만 85% 주가가 상승했다.

안철수 테마주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안랩은 지난달 25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월 고점(10만2500원, 1월 26일) 대비 15% 이상 떨어졌다. 안랩은 안 의원이 창업한 정보보안 전문기업이다.

앞서 언급한 두 회사 모두 주요 수급 주체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이러니 개인투자자 수익률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수익률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움직이기는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판세에 따라 군수, 의료산업 등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정도다. 그래도 우리처럼 유력 정치인과 같은 학연, 지연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지는 않는다.

정치테마주는 결과가 늘 처참했다.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테마주만 봐도 답이 나온다. 사외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던 덕성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3월에만 주가가 34% 하락했다. 1년 주가 하락률만 64%에 달한다. 최대주주가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라고 해서 테마주에 편입된 NE능률의 1년 주가 수익률은 -59%다. 주가 상승의 이유였던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바닥 모르고 떨어졌다.

정치테마주의 피해자는 늘 얕은 기회에 편승했던 개미들이다. 정치판이 요동치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 떠난다. 후보는 당선을, 지지자들은 정치참여의 소기 목적 달성을 가져간다. 테마주에 편승해 물량을 떠안은 개미들은 무엇을 얻었는지 반문해 본다.

tskwon@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덕헌 | 주필 이승현 | 편집국장 박성호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6701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44	부동산부	(02)799-2625	산업부	(02)799-2663
미래IT부	(02)799-2665	중소중견부	(02)799-2637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뉴스부	(02)799-265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구성헌
부동산부장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유독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단지별 하락세까지 언론사들이 연일 보도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미분양과 하락세에 신음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됐을까?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꼽아 보자면 금리인상과 거래절벽, 이로 인한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더 앞으로 가보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얽히고설킨 대못질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는 이 같은 하락세가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기 힘든 것이 부동산 시장이고 현대사회의 경제순환이다. 영끌족들이 이자로 고통받는 것이 쌤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집을 지어놓고도 팔지 못하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어려움 역시 불 보듯 뻔하다. 또 이 사업에 돈을 댄 증권사나 은행권은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쇄작용은 결국 우리 경제 체질 약화로 이어진다.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비정상에 가까웠던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둘씩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보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의 상당 부분을 거세했다. 취득세 중과는 그런 규제 중 대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부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90%가량은 이 같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누구한테 전가될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는 사상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고팔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였다.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그런 구역이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만 돼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게 막아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과 집값 하락이 겹치자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피해는 엉뚱한 세입자들이 보고 있다.

주택 시장뿐만 아니다. 건설노조의 생떼에 현장이 번번이 멈추면서도 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자그마치 3년간 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상화의 기틀을 닦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건설사들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원 장관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속내는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란 것'이다. 예전처럼 정부가 무조건 막아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 정부 탓을 할 때도, 현 정부 정책을 칭찬할 단계도 아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 정부 때 과열된 집값을 서서히 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값이 '폭등'했던 것이 정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폭락'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려면 아직도 남아 있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이다. carlove@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정부가 어제 부모급여 도입, 청년 도약계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부모급여 사업에만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명까지 떨어졌다. 본지와 여성금융인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당시 IMF 총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 사회상을 두고 "집단자살"이라고 경고한 게 2017년의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바뀐 것은 그 후로도 거의 없다. 거꾸로 달린 셈이다.

어제 제시된 방향에는 국가 곳간을 더 축내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 허송세월만 거듭한 근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또 헛구호만 외치는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없을 수 없다.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투입된 천문학적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는 근 20년의 시행착오를 곱씹고 유럽 등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기구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투 트랙 구조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재부 인구위기대응 TF(범부처 참여)가 이원적으로 움직인다. 저고위가 컨트롤타워를, 기재부 인구 TF가 실무 기능을 맡은 모양새이지만 정작 중요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잘 이뤄지는지는 여러모로 의문이다.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국가로 자리 잡으려면 인구 문제를 허술히 다뤄서는 안 되고, 전담 기구 정비 또한 등한시할 계제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는 이미 한물간 옛 유행어다.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을 포기한다는 9포 세대라는 말까지 횡행하는 판국이다. 참담하고 염려스럽다. 정부가 먼저 크게 각성해야 저출산·고령화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 '아이 낳는 사회'도 가시화한다. 정부가 이번 방향 설정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함께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두려움 없는 늦깎이

CEO 칼럼



손종수
브라운백 대표

로저 페더러는 10대에 들어서야 테니스를 시작했다. 그는 스키, 레슬링, 수영, 스케이트보드, 야구, 핸드볼, 테니스, 탁구 등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했지만 제대로 운동을 한 것은 또래 선수보다 한참 늦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 세계 입문 후 어릴 때부터 테니스에 올인했던 많은 선수들을 꺾으며 테니스의 황제로 시대를 풍미한다. 반면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우즈를 다르게 키웠다. 우즈는 생후 6개월부터 훈련받았으며, 네 살 때부터 아침 9시부터 매일 8시간 이상 훈련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세계적인 골퍼가 되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설이 되었다.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의 저자 데이비드 엡스타인은 페더러를 '늦깎이'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빠른 출발보다 다양한 탐색을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비결로 꼽는다. 어린 시절에 반드시 성과를 이뤄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 오히려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해내는 탐색의 기회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업 세계의 변화를 관찰하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오늘날 각종 직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강요받는다. 1960년대 인기 직종 1위는 택시운전사였지만, 2000년대 인기 직업 1위는 공인회계사였다. 두 직업 모두 현재도 존재하지만, 그 위상은 이제 과거와 너무나 다르다. 택시운전사는 인기가 떨어졌을뿐더러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예감하게 되었고, 공인회계사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대체 직종으로 꼽히기까지 한다.

트렌디한 직업의 경우에도 긴장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다가 어느새 큰 매체 예산 점유율을 차지한 페이스북 광고를 해야 했던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페이스북 이후 단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플랫폼에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특정 직군이나 직업으로 진로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목적인 조기교육은 오늘날로 보면 이른바 '대치 키즈'와도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유아기부터 공적 교육기관 대신 제한된 입학 기회의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10대 내내 학원과 과외 뺑뺑이를 돌며 명문대 입학의 과업을 향해 집중한다. 하지만 대학이 인생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85년 국내 입학 선호 1위는 법학/물리학이었고, 그 뒤 의예과의 시대가 거의 30년간 이어졌는데, 2019년 기준 수위는 경쟁률 99:1을 보이는 연기학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그리고 미디어 산업으로 국내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변경된 것을 엿볼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획일화를 넘어 개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의 주소를 알려준다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과거 스스로를 감추고 산업사회의 역군이 되기를 희망하던 시대, 개인의 입신양명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던 시대가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어쩌면 늦깎이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배운 우리나라에는 이제야 균형을 위한 단계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늦깎이였다. 창업 경험에 비해 기관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 형태의 사업도 비교적 늦은 시기에 구축했고, 주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미디어커머스로, 라이브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할 때 전통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기술보다는 예술에, 유행보다는 관성에 익숙했기 때문에 산업의 크기 대비 혁신이 늦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강점이 되었다. 우리의 디지털 마케팅은 미디어커머스 회사보다 다소 덜 뾰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커피 산업에서는 최첨단이었다. 우리의 고객관계관리(CRM)는 선진 B2B 회사에는 우스운 수준일 수 있었지만, 주경쟁사가 기존의 자판기 영업 일색인 환경에서는 매우 유리했다. 친절한 서비스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고민하는 사업자는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큰 기회는 결국 '나다움'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찾고, 인생의 굴곡을 음미하는 것이었다. 연결과 확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외부 예측이 아닌 내면의 탐색으로 들어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단순하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즐겁고 행복한가?' 등의 질문은 이럴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늦깎이가 아니다. 다만 나다운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처벌조항이 없다.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유사한데,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퇴직급여의 IRP계좌 이전'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퇴직금이야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까지는 야기하지 않는다. 반면 위험성 평가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사업장들은 항상 불가역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나,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추후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귀 사업장 노동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KB국민은행 | KB증권 | KB손해보험 | KB국민카드 | KB라이프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타시스템 | KB신용정보

KB금융그룹